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 땅에 온 교회를 주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4년 6월 15일 (토) 제 1972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작은 교회, 큰 믿음

소규모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독특한 장점도 있다

주일 아침마다, 갈렙 푸게이트(Caleb Fugate)는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북동쪽으로 70마일 떨어진 지역의 구불구불한 언덕 길을 따라 운전하여 광활한 부지에 있는 오래된 집들과 다이아몬드빌 연합 감리교회 뒤편의 자갈밭에 있는 공원을 지나간다. 이 작은 흰색 건물은 빨간 문 옆에 있는 거대한 감리교 로고(십자가와 불꽃)가 아니었다면, 정면에서 보면 원룸형 학교 건물과 비슷했을 것이다. 그는 오전 9시 예배를 주관하고, 그 후 30분 동안 교인들을 방문할 예산을 책정한다. 그런 다음, 클라이머 시내의 작은 식당들과 지역 사업체로부터 몇 블록 떨어져 있지 않은 클라이머 제일 연합 감리교회 11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다시 3마일을 운전하여 시내로 돌아간다.



“이 작은 책임을 맡게 된 것은 내가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가장 좋은 경험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푸게이트가 섬기는 교회와 같은 소규모 교회는 미국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하트퍼드 종교연구소(Hartford Institute for Religion Research)가 지난 20년 동안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교회(매주 출석 100명 이하)는 현재 미국 교회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소규모 교회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 15,000개 이상의 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FACT(Faith Communities Today)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회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각 규모의 교회마다 지역 사회와 기독교 전반에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선물이 있습니다.”라고 연구소 소

장인 스콧 썸마(Scott Thumma)가 말했다. 주일 아침 교회에 모이는 평균 교인 수는 2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2000년, 미국 교회 예배 출석 평균수는 137명이었으나 지금은 65명으로 줄었다. 교회 출석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소규모 교회가 미국 교계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는 교회의 45%가 매주 출석 인원이 100명 미만이었다. 그 비율이 65%까지 올랐다. 출석 교인이 100명 미만인 교회는 종종 실존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들은 시간제, 무급 또는 이종직 목사를 고용할 가능성이 더 크며,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시선에 지출한다. 주일 오전 출석수가 50명 미만인 교회 중 65%는 지난 20년 동안 출석률이 5%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작은 교회 신도들은 놀라울 정도로 신실하다. FACT 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교회가 매주 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1인당 가장 많은 금액을 교회에 헌금하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가능성도 더 크다. 그리고 소규모 교회에는 파트 타임이나 무급 목회자가 있는 경우가 많고, 직원 채용에 대한 지출도 적기 때문에, 선교와 지역 사회를 위한 사역에 예산을 더 지출할 수 있다. 27세의 독신인 푸게이트는 세 가지 사역에 매주 최대 70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지만, 부담감도 느낀다. 클라이머에 있는 교회에는 십대 자녀를 둔 가정과 청소년 사역이 필요하다. 양육 사역에는 목회자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에, 그가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푸게이트는 “그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라고 인정한다. (3면으로 계속)



일터에서 ‘함께’ 결정하라

결정 과정의 공유라는 기독교적 일의 가치

페인트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 조(Joe)는 같은 일을 반복한다. 손님이 와서 특정한 색의 페인트를 주문하면 조는 해당 페인트를 골라서 기계에 섞고 통에 담아 손님에게 건네준다. 그다음에는 돈을 받고 고맙다고 인사하며 다음 손님을 받는다. 같은 일은 반복된다. 이 일은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조가 직감이나 결정을 한다면 그는 해고당할 수도 있다. 그의 상사는 조가 같은 일을 종일 반복한다 해도 제시간에 와서 해준다면 문제없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조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는 일에 무슨 변화나 성장이 있을까?” “이 일이 내가 일하는 회사에 실제로 무슨 영향을 줄 능력이 있을까?”

이 이야기는 최근 출판된 요한 하리의 별거벗은 정신력의 6장에 소개된 한 사례다. 저자는 일하는 현대인들은 이와 같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는 열망과 자기 인생의 실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요한 하리가 페인트 가게 점원인 조 필립스와 인터뷰할 때, 그는 공감각 가운데 각종 중독에 빠졌음을 고백했다. 조는 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 속에서 아무런 기대를 갖지 못하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냥 먹고 살아야 하니까 무기력감 속에서도 일할 뿐이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쳇바퀴 돌 듯이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무의미하게 일하고 있을까? 이 책의 저자는 2012년 142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에서 행한 일 경험에 관한 조사를 예로 든다. (12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강기봉 목사 4면



신앙에세이 류응렬 목사 16면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년 교회배너 | 헌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1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2024년 KWMC 제 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예수

Jesus, No Other Name!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행 4:12)

구원의 그 이름

대회 참가 등록 안내

등록방법 : 온라인 등록 kwmc2024.org
등록혜택 : 식사(6회), 책자, 기념품, 전문영역 참가, 일반영역 참가 자격 등
문의 : 이명철 사무국장
213-605-2517 kwmc.usa@gmail.com

일시 : 2024년 7월 8일(월) ~ 11일(목) 장소 : 남가주사망의교회 (Anaheim, CA)

협력단체 : GBC 미주복음화중심, 정함 사단법인 복음의전함, KWWA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KWMF 한국세계선교협회

개회사 KWMC 상임의장 고석희 목사	개회설교 KWMC 대표의장 이승중 목사	성찬식 나성명교회 박은성 목사	아침설교 열반인베네텔교회 김한요 목사	아침설교 와싱턴중앙로교회 류응렬 목사	아침설교 헬로우교회 김대영 목사
저녁설교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	저녁설교 은혜인교회 한기홍 목사	저녁설교 남가주사망의교회 노창수 목사	성경강해 심자강교회 양성일 목사	성경강해 Douglas Petrovich 교수	성경강해 캐나 선교사 진재혁 선교사
주제강의 유엔 사랑농업기술공로 재단이사장(미국) (KWMF) 총장 김혜구 박사	주제강의 UK Cross mission 선교사 배안호 선교사	주제강의 LA 새생명교회 강준민 목사	주제강의 i2 ministry Joshua Lingel 교수	주제강의 WEA Ef Tendo 감독	주제강의 복음의전함 이사장 고정민 장로
선교대담 KWWA 사무총장 강대홍 선교사	선교대담 KWMF 회장 방도호 선교사	주제발표 Global Connectors for Advancement 대표 김앤드류 선교사	주제발표 KWWC 사무총장, 글로벌오프 대표 조용중 선교사	폐회설교 필그림선교교회 양준길 목사	특별찬양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

발행인 칼럼

끝인가? 끈이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모든 문장에는 부호가 있다. 여러 부호를 통해 문장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 인용(引用)하고 있는 것 등을 알 수가 있다. 작가(作家)가 마침표를 찍기까지 아무리 길어도 문장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생(生)의 마침표가 있기까지 이런저런 부호로 삶은 이어져간다. 누가 그 마침표를 찍는가? 인생의 작가이다. 류시화 시인의 책 가운데 "신이 침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아주 적절한 제목을 가지고 있다. 그가 말하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인생의 유일한 작가는 지혜도 사랑도 능력도 무한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다. 시간방지에 자기가 자기 인생

의 종결자인 양 삶의 마침표를 스스로 찍으려고 하였던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 누군가? 로렘나무 아래 엘리야. 물론 로렘나무 아래에서의 그의 형편은 지치고 어려운 시간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이전 삶에는 이미 그러시내, 사르밧, 갈멜산 등 이루 형언(形容)할 수 없는 높고 깊은 위기의 장소와 시간들이 있었다. 그에 비하면 로렘나무는 작은 등성이일 뿐인데 엘리야는 거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탄식하며 냇두리를 한 것이다. 그를 향한 작가의 결말은 달랐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끝이 거기가 아니라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멋지게 더 사용하시다가 죽음을 없이 하늘로 이끄신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 올라가서 로렘나무에서 자신의 한 말을 기억하며 꽤나 무안했을 것이다.

최근에 더 듣고 더 부르는 복음찬송이 있다. 김성조씨가 만들었는데 제목부터 의미심장하다. "허락된 고난"이 제목이며 그 가사는 이렇게 전개된다. "나에게 고난은 아픔이요 눈물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환난은 아픔이요 눈물입니다/ 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 당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시련의 바다를 지나며 주님의 심정을 품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고난은 허락된 하나님의 뜻/ 거친 광야를 지날 때 더욱 낮아지게 하소서/ 환난의 바람 불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 비록 벼랑 끝에 있다 해도 희망의 끈 놓지 않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이 사랑임을 알게 하소서----" 그렇다. 우리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없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 허락된 모든 고난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선한 계획을 가득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나 비록 벼랑 끝에 있다 해도 희망의 끈 놓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바뀐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인간의 벼랑 끝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희망의 끈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떨어져 추락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벼랑에서 멋지게 날아오르면서 더 변화된 모습으로, 더 풍요로운 관점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라고 잠시 벼랑끝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1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존 번연이, 교수형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처지를 훗날 기억하며 했던 말이다. "나는 이따금 밧줄을 목에 두른 채 사다리 위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감옥생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감옥의 벼랑 끝에서 결코 낙심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놀라운 희망의 끈을 붙잡고 훨씬 날아올랐다.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큰 축복을 안겨준 불멸의 작품 "천로역정"이 거기서 탄생한 것이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자문(自問)해 보자. 이 고난은 불행하게 닥친 우연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다! 이 고난은 나의 벼랑 끝인가? 아니다. 새로운 일이 펼쳐질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끈이다!

말씀으로 당신의 우울증을 이해하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시기를 겪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이야기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신실한 주일학교 교사 사라가 몇 주째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무슨 일이 있냐는 사람들에게 피곤하다고 말할 뿐, 그녀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대화를 멈춘다.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조금씩 움츠러드는 것을 느낀다. 마치 그녀의 내면에서 빛나던 빛이 어느 순간 꺼져버린 것만 같다.

결국, 사라는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말하기를 주저하던 그녀가 속을 털어놓았다. 절망에 짓눌려 아무 곳에도 집중할 수 없고 사랑하는 일에서조차 더 이상 기쁨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울증을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냐며 절망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도무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나는 위선자입니다." 의사는 사라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약물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 그녀는 깊은 수치심을 느낀다. 속내를 털어놓으면 놓을수록, 하나님께서 살려달라는 자신의 기도를 듣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울증의 어둠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지, 사라의 의심이 점점 더 커진다. 우울증과 사라의 믿음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움까지 확고하게 만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교인들의 편견이다.

작 에스와인 목사는 여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의 눈에 우울증은 비겁함, 불신, 나쁜 태도를 의미한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거나 친구와 대화할 때도 우울증에 걸린 건 약해서 또 영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에 관한 오해는 우울증 환자가 교회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게 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신학적 오해나 회개하지 않는 죄가 실제로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바로 내가 그런 경우였다. 그러나 내 경우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확고한 이해가 회복에 결정적인 몫을 제공했다. 그러나 우울증에 영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서 우울증과 신앙이 항상 상호 배타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의 주권과 자비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애뜻함으로 자신의 절망을 표현했고 동시에 그 모든 과정에서 교회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다음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이해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성경의 몇 가지 가르침이다.

1. 시험은 오기 마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다(고전 15:55; 딤후 1:10). 그가 다시 오실 때 죽음의 모든 비참함은 깨끗하게 씻겨나갈 것이다(사 25:7-8; 계 21:4-5). 그러나 현재 우리는 타락의 여파로 죄가 모든 분자, 모든 세포를 부패시키고 죄의 광풍이 제멋대로 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롬 8:19-22).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마 16:24-25; 요 1:10-11; 15:20; 16:33). 그러나 그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함께 주셨고, 또한 폭풍이 덮칠 때 붙잡을 수 있는 튼튼한 가지가 되는 산소망을 주신다(벧전 1:3-5).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폭풍은 여전히 불어 닥친다. 세찬 바람은 우리를 불구로 만든다. 고통의 급류는 우리를 채찍질하고 비참함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쏟아지는 우박은 여전히 우리를 때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까지도 낙담하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다. 그 확신을 굳게 부여잡아야 한다. 우울증을 믿음의 결함으로 일축할 때 우리는 나의 소중한 구주께서도 참담한 슬픔을 아셨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16면으로 계속>

우울증에 관한 잘못된 인상

사라가 처음에 우울증을 밝히기 꺼린 이유는 부분적으로나마 교회가 정신 질환에 선고 내리는 낙인 때문이다. 사라는 언젠가 어떤 교회 리더가 "우울증은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했던 일을 회상했다. 또 한 번은 소그룹에서 누군가가 "아니,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슬픔과 절망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불행하게도 사라의 경험은 특별한 게 아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미 젊어지고 있는 낙담, 절망, 죄책감이라는 짐에 더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우울증에 빠진 거라는 두려

성경의 더 깊은 관점

그와 반대로, 성경은 제자가 되는 데에는 많은 대가가 따른다고 가르친다. 죄는 여전히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다. 심지어 신자에게도 영혼을 꿰뚫는 극심한 고통이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 이런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으로 그들을 다시 인도할 수 있다. 사라의 경우에 자비로운 교회 리더들과 함께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주의 깊게 연구했던 과정은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일이었다.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울증의 실체를 제대로 보기 위해 씨름하면서 사라는 하나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톨릭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Store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아숙 GUEST HOUSE
패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암)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요셉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요셉장학재단(The Joseph Scholarship Foundation)은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2022년도부터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장학재단은 퀸즈장로교회를 개척해 미주한인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고 장영춘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입니다.

신청자격 신학교 재학생 (M.Div, Th.M, D.Min, Ph.D)

신청서류 1) 목회에 대한 사명감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신앙고백문 (1장, 한영 가능)
2) 추천서 2통 (출석교회 담임목사 1통, 재학중인 신학교교수 1통)
3) 재학 중인 신학교의 성적 증명서
4) 이력서 (사진포함)

신청 접수처 우편: 36-14 165th St. 3AN, Flushing, NY 11358
이메일: thejosephscholarshipfoundation@gmail.com

신청 마감 2024년 7월 13일(토)

장학금수여식 2024년 8월 5일(월) 오전 11:00 퀸즈장로교회

문의 정기태 목사 (917-733-7387)

장학생에 선발된 학생은 재단에서 전화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합니다.
선발된 신학생은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장학금은 M.Div (신학생) 중심으로 수여합니다.

선발인원: 10명내외 개인당 2000불 지원

요셉장학재단 대표: 장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겸손함으로 헌신하며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해낼 귀한 차세대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을 꼭 찾게"

작은 교회, 큰 믿음

(1면에서 계속)

다이아몬드빌 연합 감리교회는 인구 200명의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교회 출석자 20명은 지역 인구의 10%를 차지한다. 푸게이트는 교회의 성장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했는데, 이는 FACT 조사에서 가장 작은 교회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은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은 혜택을 지역 사회에 주기를 원한다. 그 지역의 Head Start 유치원의 한 학생이 겨울옷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교인들은 교사에게 연락하여 겨울옷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신발과 옷을 모두 구입하도록 했다. 지역사회에 있는 기독교 어린이 집이 건물을 이전하자, 교회는 수프를 팔아 수리 비용으로 500달러를 모금했다.

푸게이트는 그의 교인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깊은 충성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반세기 이상 교회에 출석해 온 교인들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다이아몬드빌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캐롤 보이어(Carol Boyer)는 자신이 자랐고 거의 75년의 기간을 보냈던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몰고 다른 감리교회들을 지나갔다. 그녀의 증조부님은 1842년에 교회 설립을 도왔다. 그녀가 어렸을 때는 매주 일마다 사람들이 집에서 쏘아져 나와 교회를 향해 행진하는 일종의 퍼레이드에 동참하곤 했다고 말했다. 이제 교회로 향하는 행렬은 훨씬 짧아졌고 보이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녀는 교인들이 다이아몬드빌 주민들을 계속 초청하고, 심지어 마을의 모든 집에 담요와 초대장을 배달하기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말하기를 "저는 사람들에게 '헌금 집사를 채우기 위해 당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푸게이트는 2년간의 목회 사역을 통해 시골의 작은 교회들이 목사가 새로운 사역을 시도하도록 가까이 허락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고 밝혔다. 매주 평균 125명이 참석하는 미시시피 주 그린우드에 있는 제일침례교회는 당장 문을 닫을 위험은 없지만, 예배당을 가득 채우지도 못하고 있다. FACT 조사에 따르면, 제일침례교회와 같은 중간 규모의 교회는 예산만큼의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250명의 출석자가 있는 중소형 교회는 미국 교회의 21%를 차지한다. 재건 시대 설립된 제일침례교회의 담임목사인 콜린 몽고메리(Collin Montgomery)는 교회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쇠퇴했지만 지난 2년 동안은 부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출석률이 낮아 고전적인 600석 규모의 예배당이 텅 빈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교회는 가능할 때마다 지역 사회에 문을 연다.

사립 차터 스쿨은 주중에 교회의 교육관을 임대한다. 십대 엄마들을 위한 영 라이프(Young Life) 사역인 영 라이프(Young Lives)도 이제 막 시작된 이동식

임신 클리닉의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제일침례교에서 모임을 갖는다.

중간 규모 교회의 10개 중 거의 6개(58%)가 외부 그룹에 공간을 제공하며, 이들 교회 중 약 절반은 건물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외부 그룹은 대부분 지원 단체거나 비영리 단체이지만 FACT 조사에 따르면 교회는 4H 클럽에서 요가 수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임에 문을 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로즈빌 지역에 걸쳐 있는 벨리 스프링스 장로교회는 주중에 너무 많은 외부 그룹에 문을 열어 거의 비공식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벨리 스프링스 교회의 출석률은 주일 기준 250명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40명 이상의 가구가 YouTube로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교회는 지역사회 활동의 중심지이다. 주중에 유치원, 카운티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지역사회 행사, 쿼터 동호회 모임 등에 교회를 오픈한다. 벨리 스프링스 교회는 또한 다른 교회에도 공간을 임대한다. 지역사회 단체의 임대료는 250명 정도의 교인이 참여해야 하는 건물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몽고메리는 추가 임대 수입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교회가 단지 재정 때문에 임대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교회는 이 역사적인 건물이 지역사회를 축복하기 위해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교회의 현재 규모는 교회가 진정으로 현대의 장소가 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몽고메리는 말했다. "이 정도 규모는 우리가 관계를 정말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고, 필요할 때 신속히 움직일 수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벨리 스프링스 교회와 제일침례교회 모두 추수 경기나 호수 투어처럼 그들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활동으로 인해 한 달에 한 번만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들은 깊이 헌신되어 있다. 벨리 스프링스의 담임목사인 브래드 앤더슨(Brad Anderson)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헌금이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소규모 교회는 친밀감과 강력한 체험을 하는 장점이 있고, 많은 것을 갖춘 큰 교회 역시 장점이 많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중간 규모의 교회는 친밀감의 장점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을 갖춘 대형 백화점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쇠퇴하고 있습니다"라고 씬마는 말했다.

FACT는 최근에 절반 이상(52%)의 교회에서 출석률이 5% 이상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제프 키디(Jeff Keady)는 중소형 교회에서의 사역이 매우 소중하다고 믿는다. 그와 조니 크레이그(Johnny Craig)는 매주 2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3년에 200 교회 팹게스트를 시작했다. 키디는 "우리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이 전국 각지의 가족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소규모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자원이 늘어나는 것에 고무되어 있다. 95Network, New Small Church, Grow a Healthy Church, Small Church Pastor와 같은 사역과 조직은 소형 교회의 위상을 유혹한 목회적 소명으로 높인다. 그러나 대형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더 많은 사역자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면, 소형 교회들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20년에는 교회 가는 사람의 60%가 가장 큰 10%에 드는 교회에 출석했고, 대형교회는 교인수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의 교회에 60%의 교인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씬마는 말했다.

"이것은 도전입니다." 가장 큰 교회에 가장 많은 방문자들이 가지지만, 그 방문자들이 그 교회에 계속 출석한다는 것은 아니다. 키디는 미국 대형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의 숫자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그리고 교회 멤버로 등록된 교인들 역시 의미 있게 공동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Hartford의 연구에 따르면 대형 교회들은 자원 봉사하는 교인들의 비율이 가장 낮고, 1인당 헌금 금액도 가장 적다. 키디는 대형 교회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역병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회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한다.

씬마는 이러한 대형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엄청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중에 교회 공간이 자체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 그룹이 교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이 2,000명 이상인 교회를 섬기는 대형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소그룹으로 연결시켜 주일 아침의 압도적인 규모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다. 2020년엔 대형교회의 90%가 소그룹을 "기독교 양육 및 영성 형성 전략의 중심"으로 여겼는데, 이는 20년 전의 50%와 비교된 씬마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한 지난 20년 가운데 2020년 처음으로 교회 출석률의 평균값 변화율이 -7%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평균적인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보다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나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놀랐어요." 그러나 그는 현재 미국 교회의 4분의 1이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교인의 20% 이상이 유색인종이라는 의미)은 사실에 용기를 얻었다. 비록 가장 큰 교회가 인종과 연령이 더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규모의 교회는 교회 밖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필수 도구로 Facebook과 같은 기술을 채택했다.

목회자들은 회중이 직면하고 있는 장애물을 사랑발림으로 포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다. 몽고메리는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by Megan Fowler, CT

시론

매미소리와 인디언 찬송가 그리고 부흥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여름철 매미소리가 주는 향수(鄉愁, nostalgia)가 있다. 오래된 찬송가에서 그 매미소리가 주는 고향에의 향수가 느껴지곤 한다. 지난 주 'Navaho 인디언 Nation'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부르는 찬송가를 배웠다. "토 하 리히 아호 카고 바호 수고 다호탈~" 28장 찬송가 '복의 근원 감람하사'였다.

더듬더듬 읽어 나가는데 왜 갑자기 눈물이 나왔는지... 여름성경학교, 수양회, 작은 교회 앞마당들이 추억의 기차가 되어 지나가는 것 같은 몽글한 감동 때문이었을까. 미국에 와서 살지만 여기서도 매미소리를 듣는 지는 오래된 것 같았는데, 마침 30년 친구인 윤 모 장로의 글이 SNS에 올라왔다. 생물학 분야를 전공한 그가 시카고지역을 여행 중에 만난 매미소리에 대해 쓴 글이었다. 일부분을 인용한다.

"속소 인근 호숫가에는 야생거위들이 수없이 날아다니는 매미를 잡아먹느라 시끄럽게 돌아다녔다. 이 매미들은 '주기(週期) 매미'라고 불리는데, 올해는 특별히 13년 주기 매미와 17년 주기 매미가 함께 출현해 최대 1조 마리의 매미가 110 데시빌이나 되는 엄청난 소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803년 이후 221년 만에 찾아온 현상이라고 한다.

13년 주기, 17년 주기라는 말은 이들이 애벌레로 13년, 17년을 지나다가 성충이 되어 짝짓기를 통해 매미가 되어 2-3주일을 살고 죽는다는 의미이다. 불과 2-3주의 '천국'을 누리고 사라지지만 그 족속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생식과 왕성한 개체 수 증식의 임무를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기들만의 생명원리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매미의 삶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이 설명을 읽으며 단순히 옛 찬송가로부터 오는 잔잔한 감동과는 또 다른 '부흥에의 소망'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부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주제가 교회의 이슈가 되었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였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순종의 삶'에 있음을 깨닫는다.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밀한 플랜을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을 뒤통에서 되는 일도 아니다. 멸종위듯, 사라져가는 한인 이민교회의 다음 세대는 부흥할 수 있는가? 통계와 분석과 현실 모두 대답은 부정적이다. 나아가 절망적이다. 그러면, 손 놓고 이렇게 있어야 하나.

낯선 나바호 인디언찬송가 가사를 되뇌는 우리의 입술에서, 문득 전해진 시카고의 매미 이야기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그렇다면 노인만 남아있는 교회에서도 희망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젊은 이들의 리듬과 화음을 못 따라가는 노인(老人)의 박자일지라도 그들의 입에 남아 흥얼거리는 옛 찬송가의 운율과 느린 리듬이 불러오는 향수 속에 희망이 숨어있지 않았는가? 13년, 17년 동안 애벌레로 죽은 듯이 생명을 이어온 매미가 짧은 2주간의 하늘여행을 하며 땀방울 소리 속에서 짧은 삶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생명 전수와 종족보존의 사명이 외쳐지듯.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노스텔지어, 영적 향수가 묻어있는 옛 찬송가를 부르는 여름을 맞이하면, 아직 애벌레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신앙일지라도 곁집을 깨고 나오는 매미의 날을 기대하듯 오늘에 순종하고 산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부흥'이 내 가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시대 안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계절이다.

djlee7777@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안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름축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3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상)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blpcusa@yahoo.com / www.blpc.com Tel: (323)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한교회</p> <p>담임목사: 김홍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s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정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결혼이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잠스/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동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310)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pcsl.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요예배: 오전 1:30(수영장),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ible@bkc.org / www.bkc.org 18700 Hanover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225-7691 824 W. Valencia Blvd., LA, CA 90015</p>	<p>세계선교교회</p> <p>담임목사: 김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927, www.wmcsa.com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p>
<p>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Fa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셉</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p> <p>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동무이사)</p> <p>상담사역: (월-금) 오전 9:45 (분당)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결집도 여성리더</p> <p>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알콜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Tel: (213)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문화예배: 오후 7:30(수-금), 8:00(토) 문화예배: 오후 7:30(수-금), 8:00(토)</p> <p>Tel: (714)446-6202, www.grocei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479-4500, www.gccp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을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양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수요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org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창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평강교회</p> <p>담임목사: 송금란</p> <p>주일예배: 오전 11:00 나바호 교회: 오후 11:00 TEE-동요운송(주일): 오전 9:30 화요 3.3기도회: 매일 새벽 2:00 목요 기도회: 오전 9:00 TEE-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p> <p>Tel: 213-383-9136, pyoungg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르네상스(1) 오르산미켈레성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장애 물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 아닐까 싶다. 나는 어릴 때, 6:25를 경험했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산속의 방공호에 들어가 기도 했고, 시벨건 포탄이 읍내를 향해 하늘을 가르고 날아갔다는 어른들의 얘기를 들을 때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다. 무언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 그것은 사실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지배할 때, 그 여파는 대단하게 된

다. 지금 피렌체는 그런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1348년의 여름,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쳤기 때문이다. 옆집, 아랫집, 자주 만나는 이웃들이 갑자기 죽어 나가는 상황을 맞이해야 했을 때, 어떤 병인지, 어떻게 전염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4년 전 밀라노 인근에서 발명하여 수많은 사람이 속절없이 죽어 나갔던 코로나처럼, 변성하

던 피렌체 인구의 반 가까이 목숨을 잃어야 했으니 말이다. 아마 시내는 빈집투성이였을 것이다. 마치 전쟁 중에 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난 것 같은 모습처럼 말이다. 그 후 치열했던 흑사병이 주춤하게 되자 용케 살아남은 자들은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흑사병의 전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중에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르산미켈레(Orsanmichele, 대천사 마카엘의 뒷발이란 의미)의 건물 1층에 성모 마리아를 봉헌하는 작은 예배당이 있는데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 성소에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1292년에, 그곳에서 앓은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그 소문이 50여 년 동안 신화처럼 전해오다가 전염병(흑사병)에 대한 공포로 전국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다. 70년대 초 도

시실 관장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당시 빌려준 돈을 받아 달라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을 때,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을 옛보다가 갑자기 가격한다고 한다. 그들은 전문가들이기에 어느 부위를 가격하면 얼마를 입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박하다고 한다. 그리고 가격당한 자가 어느 병원에 입원하였는지를 확인한 후에 의뢰자에게 3-4일 기다렸다가 전혀 모른 척하고 꽃을 사 들고 병문안을 가라고 안내한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병문안을 가게 되면, 얼마 후에 빌려준 돈을 받게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한 자는 첫날이나 둘째 날은 전혀 모르는 자에게 당한 게 너무 억울하여 식식거리다가 마음이 가라앉게 되면 자신을 본능적으로 돌아보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아, 내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였구나, 깨닫고 빌린 돈을 갚는다고 한다. 사실인지 모르나 그럴듯한 얘기라서 50년이 지난데도 기억에 남아있다.

피렌체 사람들에게도 흑사병의 엄청난 재난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저들은 처음 양모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 양모가 많이 나는 잉글랜드에서 양모를 수입하여 플랑드르의 공장에서 실을 하는 사업이었다. 그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 그런데 탐욕은 멈출 줄을 모른다.

저들은 번 돈을 이자로 빌려줌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늘렸다. 그런데 흑사병의 범람으로 자신의 탐욕을 돌아보게 되었다. 교회에서 철저히 금하는 탐욕에 빠졌고, 더 나아가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벌었다는 점이였다. 당시 단테는 이런 탐욕 자를 지옥 7층에 떨어뜨린다고 신곡에서 묘사하였으니 두려움은 굉장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 오르산 미켈레 성소를 복원하는 일이었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영험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 성스러운 성소를 수리하

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헌신하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연옥에서 고통이 감면될 것이고, 거기서 천국으로 쉽게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 일에 시민들, 특히 부자들에게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 공사는 무려 요즈음 돈으로 환산하며 7백억 정도 소요되는 대공사였다. 그런데도 죄를 탐감받거나 면제받는 일이니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다.

특히 성소의 외벽에는 조각상을 장식하도록 하였고, 조각가, 기베르티(Lorenzo Ghiberti 1378-1455)로 하여금 마태의 조각상을 주문했다.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기에 자신들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전대미문의 흑사병이 시민들을 죽음에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그 두려움이 르네상스라는 인류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이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강기봉 목사
(뉴욕백민교회 원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이래,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남은 자'를 통해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신다. 홍수 심판과 바벨탑을 흠으심과 같은 대형 사건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믿음의 삶을 연결고리로 하여 구속역사를 이어가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대물림처럼, 지금도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작고, 소수인 사람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나는 오늘 사르밧(사렙타) 과부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공동체나 '사람들' 보다 나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새겨 살아야 할지를 찾고 싶다.

누는 아브라함의 표현을 생각나게 한다(창22:1-8). 과부로서 삶을 지탱하게 한 아들의 죽음인데도 평화롭게 받아들인다. 과부는 엘리야의 요청대로 그 마지막 남은 한 끼분으로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바쳤는데, 신기하게도 통

자신의 부족한 면이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존재다. 과부는 비록 삶이 쉽지 않은 중에도 생각하며, 보며 살아갔다. 그러는 중에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것이다. 엘리야를 가까이 한 덕분이기

관이다. 과부의 마음에는 물질과 외아들과 하나님, 이 세 요소가 꿈틀거렸다. 과부는 이 중 하나님을 택했다. 그 결과 세가지 모두가 살아 남았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큰 질서 가운데 두셨는데, 그 질서는 첫째 하나님, 둘째 인간, 셋째 만물 곧 물질이다. 인간의 행복은 이 질서를 따라 사는 데에서 가능하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얼마나 섬세하게 보살피시는가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꽃을 보라(마6:26). 사람이 편견이나 자기대로의 선입견에 잡히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쉽

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헌신하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연옥에서 고통이 감면될 것이고, 거기서 천국으로 쉽게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 일에 시민들, 특히 부자들에게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 공사는 무려 요즈음 돈으로 환산하며 7백억 정도 소요되는 대공사였다. 그런데도 죄를 탐감받거나 면제받는 일이니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물질을 부정적으로 여기시는 분처럼 보이기가 쉽다. 절대 그렇지 않다. 물질도 하나님이 지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에게 물질의 번영과 장수의 복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사람의 본성 속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 깊이 자리

한 남성이 30대 초반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한쪽 눈이 거의 실명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얼마 되지 않아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월 450만 원씩을 받게 되었다. 당시 고등 수급자가 월 100만 원을 받을 때였다. 이 사람은 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을 비롯해서 많은 경우에 절반을 내며 살았다. 두 내외가 하던 일도 그만두고, 국가나 지방 단체에서 경매 건등이 나오면, 장애인 우대 정책을 따라 좋은 기회를 많이 누렸다. 그런데, 이런 삶이 결국에는 비참하도록 우그러지고 조각이 났다. 부부가 서로 돈 씹씹이에 비밀이 생기더니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남편이 되고 말았다. 아들 둘이 있지만, 연락처도 모르는 관계가 되고 말았다.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물질로 산정하는 경향이 짙다. 예능과 예술까지도 '수입은 얼마나 올리고 있느냐'는 말을 농담인지 진담인지 해댄다. 요즘 축구가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선수 얼마나 받고 그 팀에 갔는가가 첫 관심사다.

사르밧 과부의 삶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에게 수년 동안(3년반)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함으로써 문을 연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의 살기를 피해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게하고, 그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들을 통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신다. 시내가 마르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의 공계를 받게 하신다.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사이의 작은 마을로, 신약시대에는 사렙타로 불리었다(눅 4:26). 이 지방은 바알숭배의 뿌리와의 같은 간악한 여인 이세벨의 고향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과 혼인하여 우상숭배를 퍼뜨리고 있는 곳이다. 사르밧 과부는 이런 우상숭배의 용광로와도 같은 곳에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 믿음을 지켜왔다.

성경에서 과부는 언제나 측은하고 약하게 보여 구제대상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부를 통해 아주 소중한 고귀한 삶의 방법,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지혜는 차별 없이 임한다. 엘리야가 떡을 요청했을 때 과부가 대답한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툇에 가루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17:12)' 죽음을 말하는 표현치고는 무척 담담하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리아산을 향하여가며, 아들 이삭과 나

도 하다. 엘리야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힘을 다했다. 죽은 외아들을 안고 자기의 침상에 누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부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17:20)' 하고,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퍼서 엎드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17:21)'하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혼이 아이의 몸으로 돌아와 살게 하셨다(17:21-24). 하나님의 구속역사는 항상 말씀을 따라 사역하는 사람과 그 말씀의 수혜자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셋이 최선을 다하는 데서 일어난다. 사르밧 과부가 보여주는 가장 소중한 교훈은 그녀의 물질

고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는 말씀들이다. 동시에 성경은 물질을 믿고 하나님도 없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살아가는 많은 경우도 소개하고 있다. 나발(삼상 25:2-38), 어리석은 부자(눅 12:15-21) 등 수없이 많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십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계명들을 어러서 부터 지켜 살던 사람이 야기도 있다. 그래도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던지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셨을 때, 그는 재물이 아까워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했다(눅 18:18-23). 하나님을 물질과 바꿀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모르는 사이 물질에 매여버린다. '

하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고 40년을 훈련하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내려주시는 경우도 소개하고 있다. 나발(삼상 25:2-38), 어리석은 부자(눅 12:15-21) 등 수없이 많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십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계명들을 어러서 부터 지켜 살던 사람이 야기도 있다. 그래도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던지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셨을 때, 그는 재물이 아까워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했다(눅 18:18-23). 하나님을 물질과 바꿀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모르는 사이 물질에 매여버린다. '

사르밧 과부의 삶은 약하고 초라했지만, 하나님 눈에 띄는 삶이었다. 선지자의 대명사와도 같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의탁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인이었다. 하나님이 쓰실만한 '남은 자'는 언제 어디에나 있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띄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띄는 그런 사람이다. 사람들은 너무 세상에만 민감하게 움직인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뒤지기 싫어한다. 그런 풍조에 휩쓸리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눈에 띄도록 앞서 달려도 남는 것이 없다. 남는 것 있는 인생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비록 한 끼 먹을 것 밖에 가진 것이 없던 사르밧 과부였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기에 위대한 여인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 과부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은하게 자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자. 여기 우리도, 또 나도 그런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마 6:33-34)'

kangkibong@hotmail.com



새라킴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Protect Kids of CA ACT (PKCA) 2024” 주민발의안 서명운동! What's Next?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대 숫자의 자원 봉사자들과 교회 연합, 다민족까지 일으킨 서명운동

지난 5월 28일, 캘리포니아 Protect Kids of CA ACT 2024 (PKCA) 미본사...

PKCA 미본사팀과 리더쉽 임원으로 협력한 TVNEXT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 단체는 5월 28일자, PKCA 대표 조나단의 공문을 통해 다음처럼 발표했습니다.

“2024 PKCA 공식 법적 서명운동이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요구하는 기간 안에, 법무부가 인정하는 숫자 546, 651 에 미달인, 총40만이 넘는 서명” 이 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총 40만이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4월 29일 첫 마감일까지 요구하는 샘플링 테스트(25%)를 거치기 위해, 3월에 PKCA 미본사가 주 정부에 보냈다가 “failed” 했던 서명들을 제외한, 5월 28일 마감일을 위해 남겨 놓았던 남은 서명들과 4월 말 이후, 3주동안 더 들어온 서명들의 숫자가 총 40만이 좀 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서명들이 모여진 카운티들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카운티들이 몰려있는 남가주지역으로, Los Angeles, Orange, Riverside, San Bernardino, San Diego였으며, 북가주 지역에서는 Santa Clara와 Alameda 카운티들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약조건 가운데도,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대의 시민 자원봉사자들로만 40만 이상의 서명이 모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Protect Kids of CA ACT 2024는 처음부터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법무부장관의 까다로운 요구들로 인해 불리한 조건들을 안고 이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끝나는 순간까지 여러 번의 법적인 소송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주 정부와 싸웠습니다. 모든 법적 싸움 뒤에는 기도가 있었으며, 주님이 이끄시기에 장애물들은 우리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첫번째 장애물은, PKCA 가 원래 제출했던 주민 발의안 제목, Protect Kids of CA ACT 2024 가 Restricts Rights of Transgender Youth(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한다) 라는 매우 부정적이고 왜곡된 제목으로...

변질되어 나왔고, 본래의 내용까지도 왜곡시켰기에 지금까지도 “Title & summary”에 대한 소송을 4번째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애매 모호한 서명운동 기간: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서명운동을 허락한 시기는 12월 초로 교회들이 큰 행사들을 가장 많이 하는 크리스마스과 연말, 새해가 걸린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서명을 제대로 받기 시작할 수 있었던 시기는 한인단체들이나 다민족들 경우 1월 말 또는 2월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짧은 3개월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좌파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장애물을 안고서도 40만이 넘는 숫자를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을 통해 CA 회복의 가능성을 본 과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서명운동이 99.9% 자원봉사자들이었다는 사실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초이며 최대의 서명 숫자가 모인 것에 우리만 놀랄 뿐 아니라, CA 주정부까지도 놀라움과, 두려움에 이반에 AB1955(학부모권리 차단) 라는 악법을 또 내놓을 정도입니다!

기쁜 소식은, PKCA 2024를 모델삼아, 미전역에서 무려 19개의 주들이 PKCA 와 비슷한 주민발의안들을 속속히 내놓고 있으며, PKCA 팀에게 자문을 구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PKCA 미본사와 다민족들에게 소망과 힘을 실어준 한인들의 강력한 활약들!!

이번 PKCA 2024 공식 서명운동에 한인들의 활약은 뜨겁고 열정이 넘치는 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이었습니다! 한인 교회들, 성도님들과 목사회와 교협회들의 활약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인들을 위한 PKCA 서명운동 설명회(주관 - 강순영목사)는 1월 19일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열렸고, 이 자리에서 TVNEXT 새라킴 사모는 PKCA 미본사 Leadership 임원의 자격으로 주민발의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인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한인 교계의 서명운동 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님을 비롯하여, 고문, 공동대회장, 실행위원으로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협회가 섬겨주셨고, LA 카운티에서는 제54대 교협회 회장단(회장: 최영봉목사)에서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셨습니다.

한인 교회들은 남가주와 북가주의 대형교회들을 합쳐서 43,887을 모았으나, PKCA 미본사에 보내진 것은, 무효화 된 서명들을 빼고 다행히 save 된 서명들을 포함하여 총 40,827개입니다. 남가주와 북가주에서 TVNEXT 주사로 들어온 모든 한/영 서명들을 일일이 검토하고 정리하여 주신 Julie Lee 집사님과 Janet Kim 집사님들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PKCA 서명운동에 무려 100개가 넘는 한인 교회들이 합심하여 참여!!! 어떤 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마켓마다 다니시며 총 10,000개가 넘는 서명을 받아주셨고,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사이즈의 10배가 넘는 서명들을 온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어떤 목회자님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함께 혹은 혼자서 하루 5시간 6시간씩 마켓 앞에서 서명을 받아주시는 등... 한인 성도님들의 열정과 사랑에 저희 TVNEXT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 단체뿐 아니라, PKCA 미본사 리더쉽팀의 임원들 전체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The fight for kids is NOT OVER! 우리 모두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미성년 학생들의 (성) 정체성을 지키는 권리를 학부모에게 주라는 것. 과학적인 성별(남녀)을 회복시키고, 모든 스포츠, 특별히 여학생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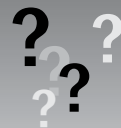
따라서, “다음 세대 지키기, 우리 자녀 살리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선한싸움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TVNEXT.org@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루어리라.” (갈 6:9)

“너희가 걷는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후 4:16-18)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한국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는데 한국 사회가 찬반의 논리로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가든그로브 송집사가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답변

A: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내용입니다. 약 6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동성애는 창조의 원리에 역행한다.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창 1:27-28) 그래서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들은 성의 구분없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서 두 사람이라는 문구로 결혼에 관한 표현을 세상의 트렌드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동성애는 구약 성경에서 소돔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온 천사들과 상관(have a sex with them, 동성성교)을 하려는 사람들을 비류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비류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의 자손들이라는 뜻이요 사탄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현재 사탄의 울무에서 회개하고 영적 변화를 받아 동성애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2)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후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문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 1:26)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서로 같은 동성끼리 결혼하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나 동성 결혼은 가문의 혈통을 끊게 하는 가문과 사회와 국가의 반역죄입니다.

3) 동성애의 죄는 죄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동성애의 죄는 성경적 표현이 가증하다(히브리어, 토에바트-토하고 싶다는 것으로 구역질 나고 가장 혐오스러운 것으로 증오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bomin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가증하다’라고 표현한 곳은 주로 우상숭배나 동성애의 죄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십계명의 1,2,3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신 12:29-31) 우상숭배의 산물인 복술, 요술 무당, 신접사, 초혼자들을 가증한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고대의 우상숭배의식에는 신전에 상주하는 창기나 남창의 여러가지 변태 성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4) 구약시대에 동성애의 처벌은 사형(capital punishment) 이었다. 레 20: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 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서 “반드시 죽일지니”는 죄인을 구덩이에 넣고 가까운 사람들인 친족부터 돌을 던져 때려죽이는 형벌을 말합니다. 현재 이슬람은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5) 동성애는 순리를 역리로 사용하는 것이다. 순리는 영어로 natural Relation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 즉 자연적 관계 곧 남자와 여자의 부부간의 성생활을 말하는데 역리는 영어로 unnatural Relation으로 부모뒀한 성관계로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인간성 상실의 죄입니다. 사실 짐승도 동성애를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짐승 이하로 떨어지는 비극적 행동입니다.

6) 동성애자들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며 난잡한 성생활로 결국 천벌을 받는다. 고전 6:9-10절은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헬리어: 말라코이-동성애에서 수동적 역할을 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헬리어: 아르세노코이타-동성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통계를 의하면 동성애자들은 5년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하며 대부분이 난잡한 성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염, 간암, 직장암에 걸려 수명이 25-30년 단축된다고 합니다. 구강 및 항문 성행위로 인해 7가지 비 바이러스성 감염과 에이즈에 감염되어 죽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7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3페이지 (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마감은 2024년 10월 31일(오후5시)(미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심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서관인체: 미주내 기독교 서점

추천도서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래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안전 불감증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있을까? 결론은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일 것이다. 그럼에도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은 왜 생겼을까? 안전 불감증은 설마가 원인일 수 있다. 설마하니 그가... 설마하니 내게... 등의 믿음이 아닌 막연한 행운 바람이 원인일 수 있다.

말해도 좋을 만한 또는 말길직한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만한 것이 없기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말이 생겼을 것이다. 남편 혹은 아내니까, 부모자식이니, 형제니까, 믿을 수 있고 믿어도 괜찮을 만하다면 세상은 좀 썩 썩하지 않을까 싶지만 이도 전혀 아니다.

오늘 뉴스에 S서비스센터에 휴대폰 수리를 맡겼는데 아주 예민할 수 있는 사진을 두어 시간이나 넘게 뒤져봤다는 그래서 뒤탈이 생길까 봐 불면이 시달린다는 그러니 믿을 게 어디 있냐는 내용이 소개되었다.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말은 이제 시대에 한참이나 뒤쳐진 속담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도무지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말이다.

공자의 심장을 담은 말도 있다. 그래도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다. 맞는 말이기는 하다.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세상에 살기는 해도 그래도 믿고 싶다는 소원마저 삭제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믿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해도 그래도 어딘가에는 있으려니 하는 희망마저 놓아버릴 수는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전 불감증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안보일 것이다. 6·25가 발발하고 3년 뒤 휴전이 되어 7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남과 북은 긴박한 대치 상태를 위태위태하게 유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무더진 것일까?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곧 전쟁이 터져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일 정도라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무사태평이다. 외국에 사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전쟁이 나지는 않았는지 걱정

이 되어 전화를 하면 한국에서는 1%의 불안감도 없이 대꾸한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전쟁 위험은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는 말세라는 말과 대등할 정도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세상을 멸하실 때 그 당시의 세상은 온갖 죄악이 만연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소개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이니라 하시니라"(창 6:5-7). 그렇다면 오늘의 이 세상 아니, 사람은 그때보다 어떠할까? 아직은 죄악이 덜 찬 것일까?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를 관영(貫盈)함으로 표현한다. 죄악으로 꽉 차 있는 상태 즉 겁에 물이 가득 차서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만금이 흘러 넘치고 아주 작은 바늘 한 개조차 더는 찔러 넣을 수 없는 상태 관영이라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각이 바로 죄악으로 관영한 상태라고 한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하시지 않는 것일까? 홍수로 세상을 멸

하실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 등 여덟 명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 세상에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일까? 아마도 아닐 것만 같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덜 차서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되찾으시려 한 영혼들이 아직도 세상에 남아 있기 때문일 듯하다.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 대를 쫓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사42:1-3).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의를 시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아직은 진노를 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즉 겁에 물이 가득 차서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만금이 흘러 넘치고 아주 작은 바늘 한 개조차 더는 찔러 넣을 수 없는 상태 관영이라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각이 바로 죄악으로 관영한 상태라고 한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하시지 않는 것일까? 홍수로 세상을 멸

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분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 "그는 반석 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신 32:4)라는 것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안전 불감증을 누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오늘도 천년을 하루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울골음으로 안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신앙의 토대에서 안전 불감증을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믿을 이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고 그 온전한 신앙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믿을 것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전 불감증은 격도 질도 다르다. 이것이 믿음의 유익이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디즈니, '스플래시 마운틴' 대신 흑인공주 테마 놀이기구 공개...문화전쟁 조짐

미국 테마파크 디즈니월드가 유명 놀이기구인 '스플래시 마운틴'을 철거하고 대신 흑인 공주를 테마로 한 놀이기구를 공개한다. 흑인 인권, 정치적 올바름(PC) 등을 둘러싼 '문화전쟁'이 놀이기구로 재연될 조짐이다.



CNN은 10일 "디즈니 최초로 흑인 공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놀이기구가 2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대중에 공개된다"며 "수십 년 동안 디즈니 팬의 사랑을 받았지만, 비판도 받은 스플래시 마운틴을 대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 놀이기구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공주와 개구리'의 여주인공 티아나(Tiana)에서 영감을 받은 '티아나의 늪지대 모험'이다. 현재 디즈니 직원과 연간 회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 중이다. 공주와 개구리는 디즈니 최초로 아프리카계 주인공 티아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라지는 스플래시 마운틴은 1992년 디즈니 월드에 도입된 인기 놀이기구다. 하지만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종차별 비판을 받은 디즈니 영화 '남부의 노래'의 캐릭터를 모티브로 삼았다. 논란이 이어진 끝에 스플래시 마운틴은 플로리다주 올랜도 디즈니월드에서 철거되고,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서도 사라질 예정이다. 영화 '남부의 노래'도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에서 볼 수 없게 됐다. 디즈니는 '티아나의 늪지대 모험'을 만들기 위해 영화의 배경인 루이지애나주의 재즈와 흑인 문화를 연구하고 이를 사실적으로 담아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팬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놀이기구가 주는 긴장감과 즐거움이 없다는 불만이다. 테마파크 팹캐스트를 운영하는 잭 캔달은 "언덕을 타고 올라갔다 반대쪽으로 내려오면서 느끼는 긴장감을 주는 장치가 없다"며 "아름답게 조향된 멋진 장면이 있지만 왜 이런 여정을 가는데 대한 자극이 없다"고 했다. 스플래시 마운틴 팬들의 반응이 더 냉소적이다. 스플래시 마운틴을 유지해달라는 청원은 그동안 온라인에 여러 차례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스플래시 마운틴의 캐릭터는 어떤 인종이나 집단을 특별히 일반화하지 않는다"며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디즈니 헤이터'에게 아부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디즈니는 그동안 오래된 놀이기구를 교체해

왔다. 그때마다 디즈니 팬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불붙었다. 최근에는 놀이기구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여성을 총을 든 해적으로 바꾸기도 했다. 정치적 올바름을 중시하는 디즈니는 성 정체성 교육 문제를 두고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갈등도 빚었다. 디즈니는 지난 2022년 공립학교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교육을 제한하는 플로리다주의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후 드산티스와 논쟁을 벌였다. 드산티스는 디즈니월드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박탈했고, 디즈니는 이에 반발하며 올랜도에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

릴리가 만든 알츠하이머 신약, FDA 자문위 통과... "인지 저하 늦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자문위원회가 10일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릴리가 만든 치료제의 이름은 '도나네맵(donanemab)'이다.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의 인지 저하를 완만하게 늦추는 기능이 확인됐으나 뇌의 부종이나 출혈 등 상당한 위험도 있다. 자문위원회는 알츠하이머병의 결과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효과가 있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미국인 600만명 이상이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다. 앞서 FDA는 지난 3월 도나네맵에 대한 승인 결정을 미루고 자문위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조사하라고 결정했다. 자문위가 도나네맵을 승인함에 따라 FDA 승인이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블룸버그는 FDA가 연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신약은 뇌에 단백질인 아밀로이드의 거칠고 단단한 공들이 쌓이면서 알츠하이머가 시작된다는 가설에 근거해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도록 만들어졌다. 앞서 이와 유사한 아밀로이드 퇴치약인 에자이와 바이오젠의 '레렘비(Leqembi)'가 2022년 승인됐다.

도나네맵은 레렘비와 마찬가지로 정맥 주사로 투여된다. 도나네맵은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몇 개월 정도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릴리가 제출한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도나네맵을 복용한 사람들은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에 비해 인지

감소가 약 4.5~7.5개월 늦어졌다. 또 도나네맵을 복용한 거의 절반이 1년 동안 같은 인지 수준에 머물렀는데, 위약을 복용한 사람은 이 비율이 29%였다. 하지만 도나네맵을 복용한 환자 중 세 명이 약물과 관련된 뇌 부종이나 출혈로 사망했다. 자문위원회는 뇌 스캔 결과 아밀로이드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나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은 릴리의 신약이 가진 매력적인 점이라고 평가했다.

머스크 "챗GPT 탑재 애플 기기, 내 회사에 선 금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탑재 계획을 밝힌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 등 모바일 기기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내 회사에서 (사용을)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10일 엑스(옛 트위터)에 "애플이 OS(운영체제) 수준에서 오픈AI를 통합한다면 내 회사들에서 애플 기기는 금지될 것"이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엑스,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를 경영하고 있다.



머스크는 "(회사) 방문자들은 문 앞에서 애플 기기를 확인받아야 하고, 이것들은 페르데이 케이지에 보관될 것"이라며 "애플이 자체 AI를 개발할 만큼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오픈AI로 보안과 사생활 보호를 보장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페르데이 케이지는 전기장을 차단하는 도체 상자를 말한다. 그는 "애플이 데이터를 오픈AI에 넘겨주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그들(애플)은 당신(사용자)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 애플은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 2024에서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8에 AI 기능을 탑재할 계획을 발표했다. 애플은 AI 서비스를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으로 소개했고, 자사 음성 비서 '시리'(Siri)에 미국 AI 기업 오픈AI의 챗GPT를 접목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015년 샘 올트먼 CEO, 일리야 수츠커버 전 수석과학자와 함께 비영리 법인으로 오픈AI를 설립했다. 2018년 AI에 대한 견해 충돌로 오픈AI 이사회를 사임하고 투자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1500년 전 이집트 성경사본 경매... 최대 53억 원 예상

약 1500년 전 만들어진 이집트 성경 사본(사진)이 경매에 나온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4세기경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 전례서 '크로스비-쇼엔 코덱스'가 11일 런던 크리스티 경매장에 나올 예정이다. 예상 경매가는 200만~300만 파운드(35억~52억5000만원)다. 한 이집트 수도사가 파피루스에 콧터로 작성한 크로스비-쇼엔 코덱스는 104쪽 분량으로, 신약 베드로서와 구약 요나서 일부가 실려 있다.



전문가들은 이 성경 사본을 "지중해 주변으로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던 때의 자료로, 유대교 전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초기 기독교인의 사고 방식을 알 수 있다"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크리스티 경매장 서적·필사본 전문가인 유지니오 도나도니는 "크로스비-쇼엔 코덱스는 기독교 연구에 혁명을 일으킨 20세기의 세 가지 발견 중 하나"라고 말했다.

크로스비-쇼엔 코덱스는 1981년까지 미국 미시시피대학이 소장했으나 이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고, 1988년부터는 노르웨이 서적·필사본 수집가인 마르틴 쇼엔이 갖고 있었다.

트럼프 유죄평결 후 바이든과 초박빙 구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학음 돈'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CBS방송은 유거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지난 5~7일 2063명 대상)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각각 49%, 50%로 나타났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7개 경합주(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조사에서는 바이든 지지율이 50%로 트럼프(49%)를 1% 포인트 앞섰다. 바이든이 핵심 경합주에서 우위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BS는 "유권자들은 경제·인플레이션·국경문제 등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는 이슈에 관심을 더 크게 뒀고, 유죄 평결은 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번 평결이 선거 판도를 극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반트럼프 표심 결집 현상도 나타났다. 바이든을 지지하는 주요 이유로 응답자의 54%가 '트럼프에 반대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또 대선 구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트럼프 심판론(26%)이 바이든 심판론(22%)보다 높았다. CBS는 "(유죄 평결 이후) 트럼프에 반대하는 바이든 유권자들이 더 많이 움직였다"며 "바이든에 대한 호감보다 반트럼프 정서에 더 많은 표가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앙칼럼

손을 펴서 사랑을 나누라(Open Your Hands and Share Love)

공황이 여기서는 예수님 (Jesus is Compassionate)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규례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환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범한다고 믿고 있었습니...

한 채 값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마 12:12)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 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마 12:13)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손을 내밀 때 오그라진 손이 펴지며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내미는 그 순간 마른 혈관에 피가 흐르고 죽은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손 마른 환자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불가능한 순종을 시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밀 때 정상적인 손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손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의 손은 곧 예수님의 손이 되어 일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손도 예수님의 손을 대신하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도 예수님의 손을 분방기를 원합니다. 과감하게 여러분의 손을 펴십시오. 어차피 폐겨 될 손입니다. 순순히 말할 때 폐는 게 복입니다. 언제 폐겨 됩니까? 죽게 되면요. 수의(囚衣)를 입힐 때입니다. 그때는 강제로 폐집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은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두 손을 펴 관 밖으로 내어놓으시오. 그래서 인생은 공수래공수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임을 온 백성이 볼 수 있게 하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두 손을 움켜쥐고 태어났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먼지 한 톨 손에 쥐지 못하고 두 손을 활짝 편 채 세상을 떠납니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부리지 말고 기뻐 있는 대로 손을 펴며 사십시오.(갈 6:10)



차용호 목사 (센터별한인장로교회)

어리석고 욕심 많은 원숭이는 앞발을 펴지 않기 때문에 뒷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원숭이는 제 욕심의 포로가 된 채 그대로 팔려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엡 2:3)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썩어질 재물을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똑똑하다는 사람일수록 흔히 물욕과 명예와 허세의 포로가 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렇게 영리하다는 원숭이가 제 꼬에 빠져 팔려 가듯이 우리도 욕망의 노예가 되어 멸망의 구렁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약 1:15). (딤후 6:10)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사람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 1:26) 영생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마 16:26) 예수님은 귀신 들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을 살리려고 돼지 2,000마리(50만 달러, 약 6억 원)를 팔사시키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세상은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서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이제는 생명 존중, 자유와 인권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는 사람이 자동차 한 대, 집

손을 내밀라(Stretch Out Your Hand) 건강을 되찾은 그는 회복된 그 손은 주님의 손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을 대신해야 할 손입니다. 전쟁 중의 독일 어느 마을의 예배당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벽돌로 조각 등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세운 예수님의 동상은 상처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손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동상을 복구하기 위해 이런저런 계획을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는 예수님 동상의 팔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상에 이렇게 글을 새겼습니다. "이 동상의 예수님은 손이 없으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손을 가지고 계신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사람의 손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에게만 손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손을 닮은 동물은 원숭이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원숭이만이 팔이나 콩 같은 것을 앞발로 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사냥꾼들은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큰 야자열매의 껍질에 구멍을 내놓고는 한 줌의 쌀을 넣어 둡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구멍으로 앞발, 다시 말해서 손을 밀어 넣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 다만, 쌀 한 줌을 움켜쥐고 나면 앞발이, 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사냥꾼이 성큼성큼 다가와도 이

살아계신 주님은 이 시간 당신에게도 "네 마른 손을 펴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손이 되십시오. 인색한 손이 되어 오그라진 채 평생을 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낸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받기만 하던 손이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요, 영광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들기만 했던 마른 손을 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웃에게 분이 되고 손을 펴서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생각의 재조명

사역하면서 상담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호소는 자존감 상실로 나타나거나 혹은 삶을 비판하며 우울감에 괴로워하고 또 용서할 수 없어서 신음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징후 이면에는 성장기에 노출되었던 환경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아 성인이 된 지금도 자존감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그러하고 어린 시절 경험한 성추행 혹은 폭행의 상처가 오늘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한 감정에 삶을 비판하기도 한다. 또 폭언하며 폭행하는 아버지 밑에서 두려워 떨던 아이가 그렇게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늘의 가정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렇듯 사람들의 다양한 문제들은 과거와 깊이 연계되어 있음을 보았다.

오늘의 삶을 위협하는 과거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토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그다음 과제라고 본다. 대개 마음의 아픔은 분노의 응어리를 낳는다. 이 분노가 자신을 향한 때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타인을 향한 때 폭언이나 폭행 혹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된다.

성장기에 주위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은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말들에 노출이 된 어떤 자매는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과거의 경험을 통한 부정적 자기 암시의 감정에서 헤어날 수 없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과거 그 감정의 동굴로 숨어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은 부정적 자기 암시 이외에도 죄책감으로 함몰되어 있었다. 그런데 자매의 삶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은 자매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지속해서 읽기로 결단하고 실행하던 중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행동의 패턴이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던 자신을 보게 했고 자매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를 부탁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기로 했다. 성령님은 자매의 잘못 굳어진 마음을 기경시하며 아픔을 주었던 그 상황에서 대한 생각을 재조정하는 단계를 거치며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금은 습관적인 행동의 패턴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 밝고 건강한 마음 지킴이로 성숙해 가고 있다.

사람의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래서 사탄도 사람들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을 주 무기로 삼아 감정을 자극하고 결국은 그 감정에 사로잡혀 헤어날 수 없게 하는 것 같다. 그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어 버린 사람들은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삶에 매몰되는 것 같다. 삶의 경륜이 생기고 목회의 연륜이 더해가며 질이치는 생각은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마음의 통증으로 힘든 분이 있다면 먼저 성령님께 마음을 온전히 토하는 기도를 하라고 권하고 싶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가감 없이 성령님께 기도로 토하면 나를 짓누르고 있던 생각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부디 자기 생각으로 인한 감정에 함몰되지 말고 모든 생각과 감정을 성령님께 토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기를 기원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yanghur@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including NY, NJ, HI, and other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양보하는 인생

위기 없는 인생은 없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유심히 보고 계신다. 위기를 마주했을 때 어떻

게 행동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 이후, 13장에서 엄청난 부자

가 되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붙었다. 땅이 좁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양이 얼마 되지 않을 때에는 싸움 일 없이 사이좋게 지냈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한 양과 염소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자, 양과 염소를 먹일 풀밭을 두고 싸움이 붙은 것이었다. 재산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사이 좋게 지냈는데, 재산이 늘어나니 싸움이 붙은 것이다. 인간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돈을 두고 가족 간에 싸움이 붙은 것이다.

계다가,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의 싸움을 주변 사람인 가난한 사람, 브리스 사람도 보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 커녕, 콩가루 집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첫째,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았다. 아브라함은 등 떠밀려서 화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둘째, '우리는 한 친족이라'라고 말한다. 너와 나 사이에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따지기 보다는, 우리가 한 가족임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이렇게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생각하게 한다. 잘잘못을 따지면 끝이 없지만, 하나임을 확인하면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하는 말을 통하여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

한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삼촌 입에도, 자기가 먼저 선택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더 좋은 것을 갖는 것보다도 롯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생각해 보라. 만약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롯이 남은 땅을 선택한다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사랑했는가? 그 관계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기적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겠는가?

전국과 지역에서 식사시간에 팔보다 긴 손가락을 쥐 봤다고 한다. 그리고 어떻게 식사하는가 관찰했더니, 지옥은 아주 난장판이 되었다. 그 긴 손가락으로 내 입에 먼저 넣으려고 하

니 입에 손가락을 넣지를 못하니, 엉망이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배도 고프니 짜증도 났을 테고 말이다. 그와는 정반대로 천국은 신기하게도 아주 깨끗하고 배부르게 잘 먹더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 긴 손가락으로 '내가 먼저 먹어'하고 양보하며 서로를 먹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우스개 이야기와 같은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 내가 움켜쥐려고 움켜쥐릴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은 내가 양보함으로 이뤄지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 "내가 먼저 선택할래? 아니면 내가 양보할래?" 하고 물으신다. 내가 먼저 양보함으로 천국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wmclakim@gmail.com



플러신학교

플러신학교, 템플턴 종교 신탁으로부터 180만 달러 이상 지원받아

'영적 성숙과 변영에 관한 선구적인 글로벌 연구를 위해'

플러신학교(총장 데이빗 임마누엘 고틀리 박사)는 템플턴 종교 신탁으로부터 1,813,487 달러의 연구 보조금을 받게 됐다. 이번 보조금은 "영적 성숙과 변영의 글로벌, 에큐메니칼, 문화 중심적 비전을 향한 종교 교육 및 리더십 형성"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로 5년간 지원받게 된다.

데이빗 엠마누엘 고틀리 총장은 "이 보조금을 통해 전 세계 기독교 상황에서 영적 성숙의 다양성에 대한 중요한 탐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공명하는 영적 성장을 이해하고 촉진하기 위한 선구적인 발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엄격한 학문적 연구와 깊은 영적 통찰력을 통합하려는 플러의 오랜 노력

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세계교회협의회, 세계가톨릭 및 이문화 신학 센터(드폴 대학교), 전 아프리카 교회협의회, 아시아 신학 협회 등 전 세계 주요 신학 및 교회 기관과의 주요 파트너십이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자인 데이비드 왕(David C. Wang) 박사는 "템플턴 종교 신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의 연구를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 현재 기독교 성숙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성장하고 번성하고 있는 곳의 상황, 관점, 현실을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이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영적 성숙의 본질과 그 발달에 관한 주요 질문을 다루고, 더 깊은 영적 및 공동체적 삶을 육성하는 세계 교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사제공: 플러신학교)

세계한기독교인론협 주최, 제 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추천도서 7권 - 10월 31일 마감

세계한기독교인론협회(회장 임승래 장로/북가주 크리스천 타임스 발행인)가 주최하는 제 10회 신앙도서독후감공모가 시작됐다. 본 공모전은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사역과 몸담고 있는 현장 속에서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가기 바라는 목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올해는 다음과 같이 7권의 책이 선정됐다.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타데우스 윌리엄스/두란노, >어쩌다 거룩하게-나디아 볼즈웨이버, 윤종석 역/바람이불어오는곳,

>일상의 유혹-손성찬/토기장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최상훈/규장,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박영호/복있는사람, >생명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이인미/시시울,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김기석/도서출판 KMC 독후감은 레러 용지 3페이지 분량(글자 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마감은 오는 10월 31일이다. 수상자 발표는 11월 15일경이며 시상식은 12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원고에는 응모자의 이름, 출석교회, 직분,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명시 하여

wkcmmailbox@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접수된 독후감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각각 \$500, \$300, \$200의 부상을 수여한다. 자세한 것은 독후감 공모전 광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미주복음방송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GBC '복음 중심의 설교자' 주제 2024 목회세미나 열어

"복음주의 신학 위에 목회 철학과 방향이 탄탄히 서 있어야"

미주복음방송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가 공동주최한 '2024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4일(화)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열렸다. '복음중심의 설교자'라는 주제로, 밴쿠버 그레이스찬인교회 박신일 목사를 강사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남가주 지역 담임목사와 부목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미주복음방송의 김지연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고 LA 온누리교회 이정엽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됐다.

무엇보다 복음주의 신학 위에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방향이 탄탄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하고 목회자들이 미치도록 공부하며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어머니가 젖을 짜내듯 성도들에

게 공급할 때 비로소 성도들 안에서 진정한 변화와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후 질의응답과 광고 시간이 이어졌고, 광고 시간에는 MiCA의 대표 디렉터이자 미성대학교의 총장인 이상훈 목사와 나와 감사인사와 함께 MiCA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미주복음방송의 사장 이영선 목사가, 점점 교회를 빠져 나가는 30-40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MiCA와 남가주의 많은 지역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제안이 있은 후 사랑의빛선교교회 윤대혁 목사의 기도모도 순서를 마쳤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된 감사와 감동의 이야기들을 들려 주었다.

(기사제공: 미주복음방송)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

한인 종교지도자 17명 온라인 교육 수료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캐서린 엮)가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미주 장로회신학대학교의 한인종교지도자 17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실시간 화상 수업을 통해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40시간의 교육과정에서는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와 영향 △청소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 대책 및 평가 △미안법 및 기소법 등 법

률적 지원 △피해자 상담과 리소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엮소장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첫 번째로 찾는 곳 중 하나가 종교기관이다. 종교지도자들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법을 배워야만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교육은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 수강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최승민 목사가 담임목사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플러워마운드교회 담임목사 이취임 및 안수집사 은퇴예배

김경도 목사 은퇴, 최승민 목사 취임

플러워마운드교회 담임목사 이취임, 안수집사 은퇴예배가 지난 2일(주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연합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취임예배는 문두형 안수집사 대표기도, 중창단 찬양으로 이어졌다. 김경도 목사가 성경봉독 했으며 강승수 목사가(미주한인남침례회 신행총무)가 '하나님의 드림팀(호 1:1-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을 전했다. 이어 안수집사 은퇴식이 열렸으며 김경도 목사가 김진환 집사, 박성준 집사, 언구용 집사, 윤청남 집사에게 은퇴패를 전달했다. 이어 문두형 안수집사 집례로 열린 담임목사 은퇴식은 문 집사가 김경도 목사에게 은퇴패를 전달했다.

김경도 목사는 "25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섬기게 되었다. 한 교회를 오랫동안

안 섬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25년 동안 대형교회로 갈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 교회를 섬기고 은퇴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지난 25년을 돌아보면서 1999년 1월 24일 첫 예배 때 부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며 사역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명심하고 한결같이 사역했고 사역을 마칠 수 있음에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 원한다. 오늘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최승민 목사님이 앞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고 은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2대 담임목사 취임식은 문두형 집사가 청빙인준과정을 설명했으며 담임목사 서약, 공포로 이어졌으며 김경도 목사가 최승민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했으며 안수위원들이 최승민 목사 부부에게 기도한 뒤, 최승민 목사 취임사가 있었다. 최 목사는 "무엇보다 동역목사로 사역할 수 있었던 기간이 감사했다. 김경도 목사님을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 목자들을 섬기는 것, 교회의 모든 행정 등을 배울 수 있었다. 그 시간들은 귀한 경험이었다고 감사했다. 보고 배운 대로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연향 전도사가 특송, 필라한인침례교회 박종호 목사, 워싱턴 지구촌교회 박성진 목사, 테네시주 저먼타운침례교회 윤원상 목사, 조상민 목사 영상축사, 문두형 안수집사 강봉길 안수집사, 트루엣 킹 목사(전 루이스빌침례교회 선교목사), 손상원 목사(DBU신약학 교수, SSBi 설립자)가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최승민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Zoom 화면 모습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교협청소년센터, 청소년할렐루야 부흥집회
 뉴욕교협청소년센터(대표 최호섭 목사)는 6월 21일(금) 오후 6시, 22일(토) 오후 4시 친구교회에서 Ron Walborn을 강사로 초청하여 'Rise Up (벨후 1:10-11)'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할렐루야 부흥집회를 개최한다.

▲ 문의: 212-464-7812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 야외친목회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회장 이규형 목사)는 6월 19일(수) 오전 11시 알리포드 파크에서 야외친목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440-2287

퀸즈장로교회, 특별새벽기도회 & 특별활동위원회 집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6월 17일(월)부터 22일(토)까지 오전 6시 본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시편 42:2)' 주제로 여름사역과 환우들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가진다. 또한 6월 22일(토) 오후 6시 본당에서 'How Great is our God' 주제로 특별활동위원회(바다워십, 찬양 댄스, 유스오케스트라, 합창, 국악 등) 집회를 가진다.

▲ 문의: 718-886-4040

뉴저지장로교회, 하계부흥회
 뉴저지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조영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6월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주일예배시간에 펠팩/오를랜드 예배당에서 개최한다.

▲ 문의: 201-944-5756

벤엘교회, 선교바자회
 벤엘교회(담임 백신종 목사)는 6월 22일(토) 9시부터 2시까지 본교회에서 선교바자회를 개최한다.

▲ 문의: 410-461-1235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 제1회 향존직 사명자 컨퍼런스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는 6월 24일(월)부터 25일(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프라미스교회 베들레헴 성전(사무 허연행 목사)에서 제1회 향존직 사명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문의: 회장 황규복 장로 91-204-9879, 준비위원장 최원호 장로 516-375-7001

퀸즈제일교회, 황상하 목사 은퇴 감사예배
 퀸즈제일교회는 6월 30일(주일) 오후 5시 퀸즈제일교회 예배당에서 황상하 목사 은퇴 감사예배를 드린다.

▲ 문의: 718-751-6368

뉴욕센트럴교회, 독립기념일 축제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는 6월 30일(주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본교회에서 독립기념일 축제를 개최한다.

▲ 문의: 516-387-9940

채경락 교수 "로마서 목회적 강해설교"

퀸즈한인교회, 제5회 뉴욕신학세미나 개최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제5회 뉴욕신학세미나를 6월 10일(월)-11일(화)까지 퀸즈한인교회 바울관 2층에서 채경락 교수(고신대 설교학 교수)를 초청하여 '로마서 목회적 강해 설교'를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틀간 총 4회에 걸친 90분 강의로 1강 목회적 강해 설교 작성법, 2강 로마서 설교 구상 및 적용 I, 3강 로마서 설교 구상 및 적용 II, 4강 로마서 설교 구상 및 적용 III 및 질문 시간으로 진행됐다. 채경락 교수는 "제한된 시간 내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질을 가진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해드리고 싶다"며 강의의 핵심을 소개했다. 채 교수는 강의를 통해 "선명한 주제로 짧게 느껴지는 설교를 해야하며 탄탄한

구조를 가진 설교를 해야 한다. 성도들에게 말씀의 양식이 되는 설교는 영적인 양식을 주는 것이다. 복음적인 기초가 들어가야 밤이 되는 영적인 양식이 된다. 또한, 성도들에게 따뜻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본문을 계속 연구하라"고 전했다. 채경락 교수는 고신대 설교학 교수이자 분당샘물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채 교수는 서울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와 칼빈신학교와 남침례신학교에서 설교를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다. 퀸즈한인교회는 오는 9월경에 다음 뉴욕신학세미나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미나 참석자들의 이메일을 통해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재상 기자)



뉴욕신학세미나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교회에, 예수로 강하고, 예수로 정하라!"

안나산기도원, 제2회 강소교회 세미나 개최

제 2회 강소(強素)교회 세미나 2024가 5월 28일(화)부터 30일(목)까지 메릴랜드 프레드릭 소재 안나산 기도원(원장 김영창목사)에서 열렸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뉴저지, 테네시,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미주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35명의 목회자와 해외 선교사들이 참여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된 세미나는 모두 일곱 번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선교 파노라마"를 통해 참여한 선교사들이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연합하는 시간이 되었다. 개최 예배에서 장시문 목사(바이블 선교재단 이사장)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와 천국의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한다"면서 "더욱 성경을 연구하고, 성찬의 의미를 전달하는 종들이 되라"고 당부했다. 이어 권기창 목사(말씀으로 사는 교회 담임)는 "왜? 강소(強素) 교회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권 목사는 성경적, 시대적 진단을 통해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임을 선포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강소(強素) 교회"로 개념화 된다고 논증했다. 이번 강소교회 세미나는 월드비전, 해비스트 커넥션, 디씨 패밀리 인스티튜트, 바이블 선교재단, 안나산 기도원, 말씀으로 사는 교회의 동역으로 진행됐다. (정려: 김재상 기자)



선교찬양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가정회복기독교운동 선교찬양제 개최

세계 9개국에서 어머니기도회가 열리도록 지원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전희수 목사)가 주최하고 웨이스선교회와 협찬하는 찬양제가 6월 9일(주일)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정성철 목사)에서 열렸다. 웨이스선교회가 열방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주요사업인 세계가정회복기도회 선교를 돕기 위한 찬양제로 치러졌다. 웨이스선교회는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계 9개국에서 어머니

기도회가 열리도록 재정지원을 할뿐만 아니라 기도회 참석자 자녀 장학금 지원 및 자립경제를 지원하고 있다. 회장 전희수 목사는 인사를 통해 "가정회복기독교운동인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 받고, 예수를 모르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갖도록 기도회를 후원하기 위해 이번 찬양제를 준비했다. 모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



제 2회 뉴욕새교회 선교음악회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제2회 뉴욕새교회 선교음악회

'니카라과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기적'

뉴욕새교회(이명삼 목사)는 6월 9일(주일) 오후 5시 새교회 본당에서 제 2회 뉴욕새교회 선교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명삼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음악회는 뉴욕새교회찬양대, 뉴욕미션콰이어, 오케스트라가 제시 유 지휘 아래 하모니를 이루며 합창했다. 이어 이윤희의 바이올린 연주, 소프라노 정은지와 테너 조현우의 아름다운 듀엣이 이어졌다. 이날은 니카라과 이동훈 선교사의 선교지 소식을 전했다. 이 선교사는 "니카라과에서 교회를 짓고자 하는 소망으로 시작하여 현재 21개의 교회 부지를 확보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 파는 장비를 통해 80개 이상의 우물을 뚫으며, 전도대회를 통해 7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또한 니카라과연합

장로회 독노회가 구성되어 17명의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 그 건물 안에 클리닉을 세워 선교사들이 진료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사역하며 진료하고 치유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창과 더불어 박영표 목사와 윤세라 어린이의 솔로와 댄스로 진행된 Every time I Feel The sprit 곡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만들어냈다. 또한 뜨거운 박수로 인해 앵콜이 이어진 이날 선교음악회는 편곡을 맡은 차정호가 지휘하며, 지휘자 제시 유의 색스폰 연주와 함께 한 합창으로 더욱 활기를 더했다. 모든 순서는 한재홍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설립 45주년 기념 음악회 '천지창조'를 찬양 후 인사하고 있다

벤엘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음악회 '천지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장엄함과 웅장함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

벤엘교회(담임 백신종 목사)는 6월 9일(주일) 오후 5시 설립 45주년 기념 특별 음악회 '천지창조'를 개최했다. 백신종 목사는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1798년도 지금으로부터 226년 전에 작곡된 명곡이다. 이 곡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장엄함과 웅장함을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는다. 또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경험

하고 목상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설립 4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벤엘교회 초대담임 목사 김상덕 목사를 비롯하여 이순근 목사(제 4대 목사), 박동훈 목사(빌립보교회),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상덕 목사는 "벤엘 교회는 영원히 잊지 못하는 저의 첫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5주년을 축하하는 음악회와 부흥회를 개최하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45주년을 지내는 동안 그 지역 사회가 벤엘교회 때문에 발전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고 축하했다. 이 음악회는 백신종 목사의 지도로 시작 돼, 진철민 집사의 지휘로 찬양대원들과 오케스트라 대원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마지막 곡인 '우리 주님께 찬양하라' 찬양 후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끊이지 않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모든 순서는 백신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벤엘교회는 설립 45주년 맞이하여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김성찬 목사(여수제일교회 원로)를 초청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창세기 1:31)'란 주제로 부흥회를 개최했다. (홍현숙 기자 영상취재)

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고 인사했다. 지원하는 선교사는 탄자니아 정현 선교사, 과테말라 박윤정 선교사, 엘살바도르 2 조사라 선교사, 가나 흥승 선교사, 파라과이 이명화 선교사, 네팔 새빛들이 선교사, 엘살바도르 황은숙 선교사,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 태국 김용숙 선교사 등이다. 황은숙 선교사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있다"라며 지난 7년 동안 어머니 기도회를 통한 선교지의 열매를 소개했다. 음악회는 사회 권계덕 목사, 기도 이사 김홍석 목사, 찬양, 선교후원금 전달식, 광고 양미림 목사, 헌금기도 및 축도 이사장 장석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찬양은 아름다운교회 지휘자이자 솔리스트인 박영경 선생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아름다운여성합창단, 바리톤 김현일, 소프라노 박진원 등 아름다운교회 합창단과 솔리스트가 대거 참가했다. (정려: 김재상 기자)

피종진 목사 6월 부흥성회

1(토) 오후 한국교회와 목회자 살리기 연합성회 및 나눔행사
 장소: 서울강남선교센터(이사장 강사광 목사) 010-8331-3431
 서울 선한이웃교회(윤장규 목사) 성역30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2(주일) 오전 제238차 해외성회(238th Overseas Assembly)

2(주일) 밤 출국
 3(월) 필리핀(Philippines) 문명 달랠교회 원주민 부흥성회
 4(화) 필리핀(Philippines) 조리아교회 원주민 목회자부흥성회
 5(수) 필리핀(Philippines) 개인따교회 원주민 제직세미나
 6(목) 필리핀(Philippines) 썬밸루간 원주민 야외연합부흥성회
 7(금) 필리핀(Philippines) 라구나지역 원주민 교인가정방문 기도회
 8(토) 새벽 귀국

9(주)~12(수) 저녁 서울 선한이웃교회(윤장규 목사) 010-5339-6437 30주년기념 축복대성회
 10(월) 오전 세계비전부흥사협의회 장소: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오수아 여성대표회장 취임) 010-9082-9030
 대구 열방교회(배성은 목사) 010-8564-2696
 주최: 고무타기부흥사(대표회장 정태운목사) 010-2296-0675

13(목) 오전 서울 축복교회(김보배 목사) 010-2971-1479
 13(목) 오후 첫사랑 회복운동 선교센터(원장 김인나 목사)
 주최: 일파와오메가 열방부흥사(대표회장 백사람 목사) 010-2272-9119

13(주)~14(금) 낮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유재민 목사) 010-3980-5991
 14(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강사광 목사) 010-8331-3431
 17(월) 오후 한얼산기도원(원장 이영근 목사) 주최: Good TV 부흥협의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용희 목사) 010-7291-0291
 18(화) 오전 (사)지선협(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나라사랑기도대성회
 장소: 구리성민중앙교회

19(수)~21(금) Visit To The Mission Field Association MT
 22(토) 오후 서울 거성교회(노원수 목사 원로목사 주대 및 장로: 권사 임지예)02-400-8580
 23(주) 저녁 서울 열방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24(월)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24(월) 저녁 담양 새생명기도원
 25(화) 송추 반석기도원(원장 고경문 목사) 010-2391-3004
 26(수) 저녁 한얼산기도원(원장 이영근 목사) 주최: 예수생명부흥협의회 (총재 조성훈 목사, 대표회장 함금천 목사) 010-7754-8291
 27(목) 오후 논산 아름다운 기도원(원장 최미혜 목사) 010-7460-9926
 27(목) 저녁 서울 강남순종교회(오승준 목사) 010-3942-8434
 28(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강사광 목사) 010-8331-3431
 30(주) 오후 서울 은누리한중교회(정민철 목사) 010-3224-2345 목회자 부흥사 세미나
 30(주) 오후 필리핀 갈라시사 별명찬양교회(허용철 선교사)찬양위임팀 남서울중앙교회 방문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07동 101호 Fax. 02)401-7770



한인선교대회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이 남가주사랑의교회서 열렸다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예수, 구원의 그 이름!"

7월8일~11일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려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오는 7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600여명의 전 세계 선교사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지난 4일 오전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렸다. 본 대회 주제는 "예수, 구원의 그 이름!"(Jesus No Other Name!, 행 4:12)이며 남가주에서도 약 20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1988년 시카고 휘튼대학교에서 처음 개최된 후 4년마다 개최되어 왔으나 남가주에서는 지난 2016년 아주사퍼시픽대학교에서 개최된 후 이번이 두 번째다. 4년마다 열린던 것을 앞으로는 2년마다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주최측은 밝혔다.

7월 8일(월) 오후 3시부터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첫째 날 오후 7시에 열리는 저녁집회에는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가 강사로 나선다. 둘째 날 저녁집회에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셋째 날 저녁에는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가 강사로 예정돼 있다. 이밖에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이슬람 전문가 조슈아 링겔 교수, 케냐 선교사 진재혁 목사,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등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해 선교 강의를 하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KWMC 사무총장 조용중 사무총장은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11일 목요일 점심에 대회를 마치는데, 그 주말에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초청해 주기 바란다. 가능하면 금요일 저녁이나, 주일에 선교사들에게 말씀과 간증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바란다"며 "선교사들이 이 지역의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선교사들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다. 대회 등록비는 300불이지만, 주최 측은 조정이 가능하며 누구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등록방법: 온라인 등록 kwmc2024.org
 등록혜택: 식사(6회), 책자, 기념품, 전문영역 참가, 일반영역 참가 자격 등
 ▲ 문의: 이명철 사무국장 (213)605-2517 kwmc.usa@gmail.com
 (정리 박준호 기자)



MMS회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MMS 모세와 시내산 다큐 시사회 열어

"현재 영어버전 제작중, 앞으로 여러 언어로 제작 될 것"

시내산 선교회 (Mission Mount Sanai, 이하 MMS 회장 장에리)가 주최한 모세와 시내산 다큐 시사회가 6월 4일(화) 오후 5시 샌츠티시티의 더 센츠티에서 열렸다. 이번 시사회는 지난 3월 한국 SBS에서 방영한 모세와 시내산(연출 및 총감독 이인수)을 함께 감상하기 위해 열렸다.

MMS 멤버이자 미주성서화 운동본부 이사장 김재권 장로 사회와 한기형 목사(미주CBS TV 사장) 기도로 시사회가 시작되었다.

모세와 시내산은 총 2부 1부 역사가 된 신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알려진 시나이반도 내의 제벨무사 시내산 이야기, 2부 시내산의 비밀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두되는 라우즈산 시내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집트 카이로 대학,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 한국 연세대학교신학대학원, 미국의 허버드대학교, 고든콘웰신학교,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들을 비롯

한 고고학 전문가들과 인터뷰 등을 엮어서 제작되었다.

MMS 장에리 회장, 조앤강 집사, 노화복 집사는 "SBS에서 방영된 모세와 시내산은 현재 영어버전으로 제작중이며 앞으로 여러 언어로 제작이 될 것"이라 말하고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 문의: (310)308-8192
 (박준호 기자)

경희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음악대학 동문음악회

경희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회장 장인숙)가 주최한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동문음악회가 '목련'이라는 주제로 8일(토) 오후 6시 지퍼홀에서 열렸다.

클라라 신의 사회로 열린 이번 동문음악회는 한국, 트루키예, 스페인, 독일, 이태리, 프랑스, 미국 등의 가곡과 아리아가 공연이 되었다. 성악가 소프라

은혜와평강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부흥성회 및 감사예배

기념 회보집 '구름기둥과 불기둥' 발간

은혜와평강교회(담임 광덕근 목사) 창립 40주년 기념 부흥성회 및 감사예배가 5월 31일(금)부터 6월 2일(주)까지 황인철 목사(남부산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일 오전 11시, 찬양팀의 찬양과 광덕근 목사 인도로 시작된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예배는 이승기 집사 기도가 있는 후, 황인철 목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살전 1:1-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황인철 목사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바울이 3주밖에 함께 하지 못한 교회였으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성도들은 모범'이 되어 있었다"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끌려 가는 교회였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다. 셋째, 서로가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이다. 본 교회의 새로운 40년의 첫 출발점에서 데살로니가교회와 같은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단애 오른 광덕근 목사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일으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께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날 은혜와평강교회는 1대와 3대 담임 고 이정훈 목사 사모, 4대 고 유상수 목사 사모, 2대 이정남 목사 부부, 부교역자로 1대와 5대에 거쳐 섬겨온 안영근 목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증정했으며 4명의 35년 이상 근속자와 18명의 30년 이상 근속자들에게 기념 트로피와 선물을 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은혜와평강교회는 40주년 기념 화보집, "구름 기둥과 불기둥"(부제: 은혜를 돌아보며, 비전을 바라보며)을 한영판으로 발간하고 계속해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행하는 교회로 서기를 다짐했다.

(이성자 기자)



창립 40주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 촬영



이훈우 선교사 가정에서 인사하고 있다

제1회 풀러선교학 박사 동문회 주최 선교음악회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랑의 빛 되길"

풀러선교학박사 동문회(회장 김권수 박사) 주최 제1회 선교음악회가 9일(주일) 오후 5시30분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선교음악회는 우크라이나 현지로 떠나는 이훈우 선교사 가족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훈우 선교사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받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겠다"며 "하나님께서 선교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와 우크라이나 현지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창환 교수(풀러코리아센터 학장)는 "이번 선교음악회가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은 물론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무엇보다 오늘 음악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크라이나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랑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아모스 목사(LA시교회) 사회로 열린 음악회는 재즈피아니스트 이선행, 베이스 연주자 잔박(보스턴 버클리대 재학생), 수어찬양사 김은정, 찬양사역자 조영석 목사, 구현화 사모, 정종원 목사(아이엠교회 담임), 기타리스트 김진수 집사(아이엠교회), LA Praise and Worship(리더 랜디 김)이 출연하여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이날 음악회에 모금된 선교비를 이훈우 선교사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진 후 김에녹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훈우 선교사는 10일(월) 우크라이나 선교현장으로 출발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는 디에스림 재단(DSLIM Foundation)과 공동주최로 사회복지세미나를 18일(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발달장애와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정명화 프롬토어가 발표하고, 이어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사회성 지원'이라는 주제로 한국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김호연 교수가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LA카운티 정신건강국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장애 자녀를 둔 가정의 정신건강 대응법과 정신건강국 소개 및 다양한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월드미션대학교 5층 스마트강의실과 온라인 줌(Zoom)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링크: <https://forms.gle/pvtWLDg-LHqJPBdJdA>
 ▲ 문의: 이현아 사회복지학과 교수, 213-388-1000

제1회 평강교회배 '찬양' 쇼츠 공모전

평강교회(담임 송금관 목사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는 제1회 평강교회배 '찬양' 쇼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미국에 거주 중인 건강한 크리스천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신이 직접 부른 60초미만의 세로 동영상상을 찍어서 평강교회 이메일(pyongkangch@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접수기간은 6월 23일(주일)까지. 내부 심사과 SNS 조회수(2024. 06.29 - 07.10) 반응 점수를 합산해, 오는 7월 11일(목)에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시상내역은 최우수상 1명(\$300), 우수상 2명(\$100)이며 시상식은 7월14일(주일) 오전 11시에 하게 된다.
 ▲ 문의: (213)393-9136, (661)600-5877, pyongkangch@gmail.com

'이미 시작된 미래사회 그리고 교회' 북 콘서트

본지 박준호 기자의 저서 '이미 시작된 미래사회 그리고 교회' 북 콘서트가 29일(토) 오후 5시 LA기쁨의교회(담임 이희문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북콘서트는 소프라노 김미경, 테너 오위영, 피아니스트 김주영, 랜디김 밴드, 찬양사역자 이민우, 캐서린 조가 출연해 북 콘서트 축하무대를 펼치며 박준호 기자가 책 이야기를 하게 된다.
 ▲ 문의: (213)440-5862, elcrousa@gmail.com

테너 오위영 목사 독창회

세계평화를 위한 테너 오위영 목사 독창회가 오는 30일(주일) 오후 6시 LA다운타운에 있는 지퍼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월드미션대학교가 후원하여 개최되는 이번 독창회에서는 윤인상 목사가 지휘하는 라크마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협연할 예정이다.
 ▲ 문의: (310)404-5555.

한인기독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연주회

한인기독합창단(단장 김은영, 지휘 제갈소망) 창단 40주년 기념연주회 멘델스존 '엘리아'가 오는 6월15일(토) 저녁 6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창단 40주년 기념연주회에서 연주될 곡은 독일 작곡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이며 한인기독합창단원들이 소망중창단(단장 이 데보라)과 한인기독오케스트라(악장 김정아)와 특별초대 아티스트 Soprano 김주혜, 이영주, 크리스틴 오, Mezzo Soprano 김우영, 심현정, Tenor 김성봉, 백동휘, 이규영, Baritone 채홍석(엘리아 역), 크리스 방과 함께 총 90여명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 문의: (213) 503-0812,



생수의강선교교회 창립27주년 기념예배에서 이상명 총장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생수의강선교교회 창립27주년 감사예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 되자"

생수의강선교교회(담임 최형규 목사) 창립27주년 감사예배가 2일(주일) 예배시간에 거행됐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최형규 목사 사회로 시작된 이날 11시 예배는 최성학 장로가 기도했으며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날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가 '하나님의 비전과 지혜 공동체(잠 29:18, 약 3:13-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상명 목사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와서 숭한 동생을 그려 오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나의 삶을 바꾼 만남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만남도 있을 것이다. 나의 삶의 근본적 변화를 준 만남도 있다.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 다"라 말하고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플러스적 영향을 주는 사람 마이너스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간직한 자는 플러스적 성향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 말하고 "플러스적 성향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지혜가 우리를 빠르게 살 수 있게 이끄는 힘이 되는데 그런 성도는 첫째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는 성도이다. 둘째,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나가는 성도"라며 "생수의강선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비전으로 남가주에서 가장 아름다운교회, 많은 교회들의 롤 모델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최형규 목사가 결단의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최형규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넓은 공간은 아이들 차지...

예배하고 뛰놀며 꿈·비전 키운다

키즈카페에서 출발한 교회가 있다. 30 40세대 셀 중심의 강력한 소그룹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파고를 넘었다. 교회 공간을 지역의 장애인, 기업인, 어르신, 청소년들에게 내주면서도 개척 당시보다 세 배 이상 부흥한 안산 더행복한교회(손병세 목사) 이야기다.

지난 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와 인접한 행복한 마을 아파트단지 건너편 더행복한교회를 찾았다. 1층엔 정비소, 3층엔 요양원 등이 입주한 대형 상가 건물의 4층과 6층이 교회다. 키즈카페 당시의 시설이 남아있는 4층엔 3040세대를 위한 공간과 본당·목양실, 6층엔 중·고등부 초등부 영유아부를 위한 예배실과 더불어 접

이문으로 연결돼 넓은 인조잔디 위에서 뛰놀 수 있는 테라스, 옥상인 7층엔 청소년들을 위한 풋살장이 마련돼 있다. 원래 6층 초등부 예배실이 본당이었는데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4층 공간과 바꿨다. 어른들이 작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더 큰 공간에서 예배하며 뛰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인 더행복한교회 손병세(51)목사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안산 동산교회에서 청년부와 신혼부부 사역에 매진했던 손 목사는 2015년 4월 지금의 상가 4층에 있던 키즈카페를 인수한다. 3개월 뒤엔 바로 옆 공간인 지금의 본당

자리에서 더행복한교회 개척 예배를 드린다. 3040세대를 위한 교회를 꿈꾸던 손 목사는 먼저 키즈카페 문을 열고 이어 교회를 시작했던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3040세대의 관심사를 보면 여전히 1번이 자녀, 2번이 재산 증식, 3번이 건강입니다. 여건이 어려워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지 못하는 것이지 관심사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또 아이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진실입니다. 그 속에 복음이 없으면 안 되기에 교회학교 3~4세 시절부터 좋은나무 성품학교는 물론 꿈과 비전을 세우는 일에 열심입니다." 더행복한교회는 청소년부 이름이 'V-TEEN' 처치다. 'V'는 비전, 'TEEN'은 십대를 말한다. 십대들을 운영 주체로 내세워 스스로 예배당을 청소하고 예전을 고민하고 태극 등산교지 비전트립을 계획하는 일을 한다. 손 목사는 "교회 안의 또 다른 교회를 꿈꾼다"고 말했다. 청소년부 사역을 돕는 이승수(31) 부목사는 "집에선 다들 소중한 자녀들이기에 대형 청소기 코드 째는 법도 몰랐던 친구들이 아젠 교회에서 스스로 청소하는 법을 배우가며 테이블 의자 정리 등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다음세대 교육, 교회에만 맡겨선 안 돼..."

부모를 중심으로 한 세대통합 목회 필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펼쳐왔던 다음세대 사역이 세대를 분리하는 목회였단 사실을 자성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목회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세대통합을 위한 '나오 중심 교회교육'이 대표적이다. 유바디교육목회연구소(이사장 주승중 목사, 소장 박상진)는 10일 경기도 용인 KB증권연수원에서 '2024 유바디 콘퍼런스'를 열고 세대통합 교회 교육을 다뤘다.

주 발제자로 나선 박상진 소장은 다음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 가정과 교회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다음세대 교육을 교회학교와 교육담당 교육자에게만 맡겼

다"며 "또 저출생의 위기로 교회학교 부서 유지가 어려워지며 부서를 통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벽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특히 부모를 중심으로 한 세대통합 목회를 펼쳐야 한다. 이 같은 구조는 조부모의 신앙을 계승하면서도 자녀세대를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조부모와 자녀의 믿음을 잇는 '신앙의 중추' 부모들은 세대통합 목회를 위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할까. 연구소는 발달심리학자 앨런 갈린스키가 제안한 부모 발달 6단계에 맞춰 기독교 모토로서의 권고·유익사항 등을 소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임신 기간(이미지 형성기)은 배우



"한번 헌혈로 세 명 살리죠" 종일 사랑 실천 행렬

아침부터 헌혈버스 6대 성도들 북적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베다니광장은 9일 오전 8시쯤부터 헌혈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는 성도들로 북적였다. 성도들은 먼저 베다니홀에 들러 의료진을 상대로 지병 유무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뒤 광장 주변에 주차된 헌혈 버스 6대로 흩어졌다. 헌

혈이 끝나면 헌혈증서를 받았고 상당수는 이 증서를 교회에 기증했다. 아침부터 시작된 성도들의 행렬은 이날 오후 5시쯤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광경이 펼쳐진 행사는 '제37차 사랑의 헌혈'이었다. 1989년 시작된 이 행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대한적십

자사,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이 공동 주최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안수집사회가 주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사랑의 헌혈'에 참여한 성도는 7만7192명(이하 연인원)에 달하고 기증받은 헌혈증서는 4만 5613장이나 된다. 단일 헌혈 행사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오랫동안 대규모로 진행된 행사여서 2002년엔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까지 '사랑의 헌혈' 참여 인원은 5만 2300명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사 주제는 '1+3 헌혈'이었다. 한 번의 헌혈로 세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안수집사회 회장 김장걸 집사는 "교회 성도 중엔 '사랑의 헌혈'을 비롯해서 200번 넘게 헌혈을 한 사람도 있다"며 "헌혈은 이웃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행위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띤다"고 말했다.



"기독교 역사 살아 숨 쉬는 사적지 찾아가 볼까"

예장통합 '한국기독교 사적지' 수정·증보판 발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익시 목사) 총회가 기독교 사적지와 유물을 소개하는 '한국기독교 사적지' 수정·증보판을 발간했다. 책자에는 예장통합이 지정한 한국기독교 사적지 4만 148곳과 유물(1~9호)을 비롯해 전국 분포도와 현황표, 권역별·테마별 탐방지가 담겼다. 예장통합은 제91회 총회에서

'한국기독교사적지 지정에 관한 규정'을 결의한 후 지금까지 주요 사적과 유물을 발굴하고 있다. 1호 사적은 서울 종로구 구미봉장로교 서울선교부 부지와 선교사 사택이며 올해 제108회 기에는 경북 안동선교부 선교사 묘역과 전북 무주군 두길교회 구 예배당을 각각 47, 48호 사적으로 지정했다.

안동선교부 선교사 묘역에는 로저 E. 윈(1882~1922) 선교사를 포함한 3기의 묘가 있다. 윈 선교사는 1914년 안동·예천·의성에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학교 사역을 펼친 인물이다. 그가 1920년 설립한 안동성경학교는 현재 경안성서신학원으로 이어지며 한국교회에 공헌을 끼쳤다.

두길교회 구 예배당은 한국교회 예배당 건축 변천 과정과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남녀 출입문을 따로 두는 등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총회는 오는 27일 두길교회에서 지정 감사예배를 드린다.

책에는 102회 총회부터 따로 지정한 유물도 실렸다. 안동교회 학습·세례인 명부, 세월교회 종 등이 유물로 지정됐으며 이번 회기에는 경안노회 회의록(1~49권)과 전북노회 회의록이 새롭게 지정됐다.

일터에서 '함께' 결정하라

(1면에서 계속)

일터의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맡은 일에 "참여하며"(engaged) 직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답한 이는 13퍼센트에 불과하다. 반면 63퍼센트의 노동자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실제로는 "참여하지 못한 채"(not engaged) 마치 일하는 시간 내내 몽유병 환자처럼 시간만(에너지나 열정이 아니라) 축내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나머지 24퍼센트는 "적극적으로 일을 망치려고 한다"(actively disengaged). 이들은 일터에서 행복하지 않을뿐더러 바쁘게 자신들의 행복하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다른 참여적인 동료들이 성취하려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독교적 일의 신학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근대 개인노동윤리와 직업 소명은 자신의 세속적인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할 것을 가르쳤다. 하지만 성실, 인내, 정직의 기독교적 덕목을 강조하며,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골 3:23)는 것으로는 처절한 일터 현실 속 그리스도인들에게 울림이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1세기에 박해받는 상황에서 믿지 않는 육신의 상전을 모시며 인내와 진실함으로 자기의 일을 감당할 신앙 선배들의 귀감이었던 위와 같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일터의 사람들은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위에서 결정된 대로 지시에 따라 일

할 뿐 자신이 하는 일이 전체 일의 계획과 진행 속에서 어느 부분을 맡고 있는지, 어떻게 목표하는 바에 기여하는지 모른다. 들리는 말로는, 고급 기술을 다루는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일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업화시킨다고 한다. 나중에 퇴사한 뒤에도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말이다. 기업의 자기보호적 정책은 결국 종사자들을 일로부터 더욱 소외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의 신학이 제시할 수 있는 기독교적 가치는 무엇인가?

요한 하리는 같은 책에서 또 다른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한 정신과 의사가 영국의 일반 공무원 18,000명과 수년간 인터뷰를 한 뒤 재량권과 의미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그런데 복잡한 일들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결정으로 인한 책임의 중압감이 사달릴 고위직 공무원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단순한 일반 처리하면 되는 하급직 공무원들에 비해 1/4 수준이라는 것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관리자들이 단순 반복 업무하는 이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다. 주도권과 통제력의 상실은 비록 일에 대한 책임 부담이 덜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

우울, 불안, 공황장애, 무기력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들은 우리 사회에 쓰나미처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덮쳐온다. 우리가 깨어 있는 시간 대부분을 일하면서 보낸다면, 일의 경험이 정신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일에 재량권을 얻지 못한 대다수는 지금도 자신이 하는 일로부터 소외와 무의미라는 고통을 겪으면서 밥벌이의 신성한 임무를 묵묵히 감당한다. 인내와 순종을 가르치는 신앙의 권면이 일정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의 신학이 이와 같은 일터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오히려 개인에게 성실과 인내로 일을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독교적 정신 승리로 비칠 수 있다.

일에 대한 기독교적 비전은 개인적 덕목의 차원뿐 아니라 일의 사회적,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해야 한다. 일의 재량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현실에서 일의 신학이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답은 성경에 있다. 창조의 기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주신 첫 번째 과업이 바로 결정권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창 2:19). 하나님은 동물과 새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보여주시며 이름을 짓게 하셨다.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른 대로 이름이 결정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 권한을 부여하시는 첫 번째 상징적 사건은 바로 결정권을 주신 것이다. 아담의 결정 과정을 하나님은 관찰하시고, 그의 결정을 허락하

셨다. 이름을 짓는 결정 과정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만 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결정권이라는 고유한 역량을 일터에 접목한 사례가 있다. AES(Applied Energy Services)라는 민영 전력회사를 공동 창업하고 이 회사를 4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킨 데니스 바키(Dennis Bakke)는 사람들에게 결정 과정에 동참시키는 것이 일터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임을 확신하였다. 그 자신이 매우 주도적이고 독선적인 성향이라고 고백하는 그는 직접 경영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일의 결정 과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위에서 시키는 일만 강요당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창의성과 미적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이고, 아담에게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인간과 결정권을 공유하신다는 것임을 믿고 이를 자신의 기업 경영에 도입했다. 모든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자기 멋대로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조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당 사안이 있을 때 최소한 5, 6명의 관련 경험자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결정을 내리게 했다. 결정으로 인한 결과가 좋았다 하더라도 충실한

조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질책을 받는다. 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충실한 조언 과정을 거쳤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함께 부담한다. 인간은 결정권과 창의력뿐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공동선을 이루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권 부여와 조언 과정을 인적자원개발의 근간으로 삼은 AES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인간 경영을 구현한 실험적인 모델로 평가받았다.

데니스 바키의 이러한 성경적 일의 철학은 그의 저서 Joy At Work에 이야기 형태로 담겨 있으며, 그의 형제들이 공동 집필한 일의 즐거움 워크북에도 성경공부 교재로 전개되어 있다. 기독교적 일의 관점은 무엇이 달라야 하나? 그동안 일의 신학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측면에서만 기독교적 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경향이 있었다.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지 않는 법, 정직하게 세금 내기, 주일 성수 하기, 직장에서 험담하지 않기 등과 같은 윤리적이고 방어적인 문제들을 다루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신자 개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 양심의 과제다. 신앙의 양심이 흔들리는 상황을 상대하고 극복해 내는 일터의 신앙인들을 위한 목회적 격려와 위로는 항상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터에서 신앙이 있던 없던 사람들 대다수가 겪는 고통은 바로 일하면서 일의 주도권과 재량권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실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한

과 결정권을 인정한다. 일터에서 결정권을 공유하는 것은 언뜻 낭만적으로, 또는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다. 데니스 바키가 AES의 최고경영자로 일할 때도 이사진과 대주주들로부터 그러한 우려와 공격에 시달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와 같은 창의성과 결정권을 부여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진지하게 실천을 모색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성경적 일의 신학이 일터의 세계에 줄 수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먼저 작게라도 시작해 보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교회의 한 부서에서도 여러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있을 것이다. 가족 여행을 언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연구하고 조언을 얻어서 결정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회 소그룹에서 기도회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성원들이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한 교회는 자기 교회의 예배 시간마다 낭송하는 신앙고백을 교인들과 함께 결정했다. 물론 조언의 과정을 충실하게 거쳐야 한다. 결정 과정의 공유라는 기독교적 일의 가치가 교회와 가정에서부터 체득된다면 그 가치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속의 일터로 스며들 것이다. 더욱더 결정 과정에 참여할수록 책임감과 즐거움도 늘어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원형적 모습이다.

by 김선일, TGC

mission 선교의 창 (239)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홈리스(Homeless)에 대한 이해와 대책

노숙자(露宿者)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저들은 수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도시 한복판의 거리에 즐비한 혐오스런 전막들, 노상 방뇨 및 대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불결함, 지나가는 사람에게 행패 등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골머리를 앓으며 힘써 보지만 근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노숙자 문제가 이제 미국의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 정책 및 치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각각 일리가 있으나 관(官) 주도만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들에 대한 입체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대안이라면 무엇일까?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펴되 종교 기관 등이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 왜냐하면, 몸 부위가 곪아 있는데 근본 치료는 않고 봉대만 둘둘 감아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회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1. 홈리스에 대한 정의와 주 발생원인

노숙자(Homeless)란 어떤 사람들인가? 사전적 의미로 "이슬을 맞으며 자는 사람"을 가리킨다. 노숙인 봉사단체인

프레이포유(Pray for you)는 "집이 없거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세상에서 온갖 상처와 핍박을 받고 길 위로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했다. 홈리스가 생기는 경우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국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질병 및 장애 25.6%, 이혼 및 가족 해체 15.3%, 실직 13.9%, 사업 실패 9.9%, 알코올 중독 8.1%, 신용 불량 혹은 파산 5.2%, 임대료 연체로 인한 주거 상실 4.4%, 주위 사람들의 도움 부재 4.0%, 배우자 사망 1.5%, 교도소 출감 1.0%, 복지 서비

면에서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2. 홈리스 현황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홈리스는 얼마나 될까? 대체로 80억 인구의 2%인 약 1억 6천만 명으로 추산한다. 국가별 통계가 있지만 부정확하다. 이유인즉, 각 나라별로 조사방법이나 포함기준의 엄격성이 다르다. 무엇보다 체면이 있기에 축소 지향적으로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2021년 기준하여 쪽방 주민 포함하여 1만

4,404명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 자료). 증가추세로 볼 때 3년이 지난 지금쯤은 약 2만 명은 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은 어떠한가?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가 발표한 홈리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미전역 노숙자를 65만 3104명이라고 했다. 이 중 40%인 25만 6600여 명은 보호시설이 아닌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다. 주별 통계를 보면 미 전역의 홈리스 인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8만 1400명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다. 2위는 뉴욕주에 10만 3200명 이 있다. 대도시별로는 뉴욕시가 8만 8000명으로 가장

를 준비한다. 이어서 새벽5시에 예배를 드리고 곧장 홈리스들이 있는 LA 다운타운으로 가서 배식을 한다. 이때 한 칸에서는 사역자가 확성기를 통해 찬양을 하고 복음을 선포한다. 본 교회 사역의 목표는 저들이 중독과 방황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것이다. 그것은 "누워 있던 자에서 일으키는 자로,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손가락 짚 당하는 자에서 칭송 받는 자로"로 세우는 것이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이시자 이 공동체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 그것은 빅토빌의 10에이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LA에 7만 1300여 명이다. 3위는 시애틀이 1만 4000여명, 4위는 샌디에고 1만 260여 명, 5위 덴버가 1만여 명이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들이 절반에 가까운 49.7%를 차지하고 있고 흑인들이 37.3%, 히스패닉들이 27.5% 원주민들이 3.5%, 아시아계가 1.8%로 가장 적었다. 하지만 아시아계 홈리스들은 1만 1574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다고 연방정부 부는 지적했다.

3. 홈리스 사역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

LA에는 아버지 밥상교회(Father's Table Mission)가 있다. 이는 2016년에 LA 한인타운 근처에서 시작된 노숙자들을 위한 신앙 공동체이다. 본 교회는 대표되는 무디고 목사 외 마리아 목사, 여러 도우미들이 함께 섬기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지난 8년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200~300여 명의 아침 식사

농장이다. 저들은 2023년 2월 16일 감격스럽게도 하이데저트 선교센터를 오픈하게 되었다. 이곳은 정말 저들에게 꼭 필요한 쉼터요 재할센터이다. 저들 30여 명은 마약과 알콜의 유혹이 없는 한적한 교외에서 농장을 경영하며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총 책임자고 목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를 발한다. 홈리스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형제처럼 허물없이 함께 생활하면 저들도 언젠가는 변한다"는 것이다. (담당자: 213.364.7289).

4. 홈리스를 위한 대책

첫째 응급 구호 과정이다. 핵심은 급식, 의료, 쉼터이다. 구제 급식은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다. 더구나 의료 봉사는 매우 취약하다. 저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아가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쉼터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 민간단체, 종교 기관 등이 서로 연동되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정부는 주로 쉼터 위주로

앞으로 노숙자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인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官) 주도의 싱크 탱크(Think tank)가 필요하다. 이곳에서 홈리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정책을 내어 놓을 때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나아가 홈리스들을 위한 전문성과 통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요구된다.

맺음 말

홈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존엄한 사람이다. 같은 인간 사회에서 저들을 외면하고 가진 자들끼리 호의호식하면 너무 비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2.195km 마라톤 경기를 보면 무수한 낙오자가 탄생한다. 인생이란 장거리 레이스에서는 당연히 경쟁에서 처진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저들을 부축하며 함께 가야 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신앙인의 양심이다. 국가와 사회단체들의 도움은 외형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저들에게

세상에는 밝은 곳 못지않게 그늘진 곳이 많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있기에 존귀하다.
교회가 유리방황하는 홈리스들을 외면한 체 예배만 드려도 되는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단체는 의료 분야, 교회는 단순 급식 위주로 짜임새 역할 분담하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립 경쟁의 과정이다. 저들을 보호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한 방편으로 위의 밥상교회 모델처럼 한적한 교외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악기, 운동, 취미 생활, 단순 직업훈련 등을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번잡한 도시는 저들에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없다. 셋째 전문 연구센터 설립이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 언제 다시 거리로 튀어나올지 모른다. 누가 상처 난 저들의 심령을 치료하며 산 소망을 줄 수 있는가? 이 분야는 우리 기독교회의 몫이다. 우리 신앙인들이 진정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했다면 결코 자체 교회 성장에게만 함몰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주님의 눈과 마음은 안온한 회당 안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처럼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무지렁이 같은 자들에게 있었음이다.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32강 옷니엘, 드보라, 바락, 에훗 그리고 기드온 (3) (사사기 1-8장)

남은 백성 300명은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백성을 모았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사 7:2)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미디안 전쟁을 위해 모인 백성은 32,000명이었던 것입니다(사 7:3). 사실 32,000명 가지고 싸워도 승산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불가능한 실체를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고 하시고 물가로 데려가 시험하라고 하십니다(사 7:4). 하나님은 물을 먹을 때 개처럼 머리를 물에 두고 혀로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손으로 마시는 사람을 구분하라고 하시고 무

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마신 백성들 300명을 세우고 남은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구원하시고 미디안을 넘겨주겠다고 하십니다(사 7:5-7). 여기서 우리는 이 300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당시 군인은 의무병이 아닌 지원병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전쟁의 전리품을 얻을 목적으로 모여든 '민병대'입니다. 그중에는 싸움을 잘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흑시나 어떻게 해서 모여든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먼저 돌려보낸 '두려워하는 자'들 대부분이 바로 이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10,000명의 군사 중에 9,700명은 그나마 싸울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전쟁을 위해 왔지만 하나님의 시험에서 개처럼 머리를 물에 두고 두려움없이 마실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은 아직 적군도 보이지 않는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가며 손으로 간신히 물을 먹어야 하는 '검쟁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 두려워 떠는 자

들이 돌아갈 때도 차마 용기 내어 돌아갈 수도 없던 진짜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신 것입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햇불

하나님은 기드온까지 해서 겁쟁이 301명에게 전쟁의 무기로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햇불'을 가지고 가라 하십니다. 싸울 군인들도 시원치 않은데 '전쟁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애초에 이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사 7:2).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전쟁을 하는데 적들에게 그들을 노출시키는 행위는, 그렇치 않아도 시원치 않은 군사력과 무기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뜻하는 것이지만 결국 물을 데고 두려움없이 마실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때 분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때 분 나팔 때 불면 도우신다고 하신 '은 나팔'이 아닙니다(민 10:1-9). 이들이 가지고 나간 것은 양각 나팔로 평화의 때

에 불었던 것이며 여리고 성을 바보같은 전략으로 무너뜨릴 때도 불었던 바로 그 나팔입니다(수 6:20).

그리고 그들은 나팔을 불며 빈 항아리를 부습니다(사 7:19). 빈 항아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전쟁을 위해 나온 군인들의 신앙 상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아리는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햇불은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언약'(창 15:17)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에게 넘기지 않으시고 대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신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사 7:8-8:21). 그래서 평온한 시간이 또 다시 40년이 됩니다(사 8:28).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겁쟁이 기드온과 겁쟁이 백성 300명이 나가서 싸운 것을 기드온도 알고 300명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압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사 8:22)라고 합니다. 왕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고 군사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전쟁에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햇불로 승리를 했는데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상으로 만드는 인간의 '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 '약'에 '약'을 더합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사 8:23)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 하여 예뻐서 만들어 당시 법제가 있는 실로(사 18:31/ 삼상 4:3)에 두지 않고 자기가 왕같이 존경을 받는 자기 성읍에 둡니다(사 8:24-27). 그러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기드온의 가문과 금 예뻐서 우상으로 음란하게 위하게 되고 이것은 기드온과 그의 집에 울무가 됩니다(사 8:27).

기드온은 말만 왕이 아니었지만 왕부럽지 않은 삶을 삽니다. 아내가 많아 아들이 70명이나 있었고 자기 성읍에서는

차마 그렇게 하지 않고 세겜에 있는 침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롬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배운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사 8:34,35)는 말로 기드온 이야기를 마무리하여 반역이 반역을 낳고 패역이 또 다른 패역을 낳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드온과 같은 용사가 되자', '용사 300명만 있으면 된다'고 하며 '하나님' 아닌 사람 '용사'를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은 기드온도 아니고 어떤 사사들도 아닙니다. 성경에 '용사는 없습디다. 성경은 세상의 용사,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세상에서 악함으로 하나님으로 강함되라'고 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고후 4:7).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멈추지 않으시는 열심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배은망덕의 죄 (시106:34-48) 찬 26장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의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첫째, 작은 죄부터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계으름(34-35) 세상과의 타협(36) 우상숭배(36-38) 음탕(39)의 죄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교회에 이런 죄가 일어난 것은 십자가 중심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40-42) 죄의 결과는 심판과 사망입니다.

다. 사사기의 악순환이 계속된 때일수록 하나님의 엄중한 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언약을 확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44-45) 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위에 머물 때 회복과 소망이 생깁니다. 이월리는 복음 안에서 더 왕성해야만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이런 굴레에서 벗어납시다.

화 주 안에서 완전하라 (시101:1-8) 찬 376장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권합니다.(1-2) 어떻게 완전한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 첫째, 마음의 성결을 힘써야 합니다.(1) 사욕한 마음을 버리고(4)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5) 구스 내시처럼 주의 말씀을 알리고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온전해 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웃 관계에서 생기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1) 배도하는 자, 비무한 자,

거짓 행하는 자들(4-5,7) 가운데 있어도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기를 살피려고 힘 쓸 때 온전해 집니다. 셋째, 작은 죄를 떠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시인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떠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순간순간 회개와 믿음을 힘써서 그의 온전하심에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룹시다.

수 근심을 주께 아뢰라 (시102:1-11) 찬 369장

본문은 곤고한 자가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보여줍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란? 첫째, 동기: 그 기도는 고난을 당해 생긴 근심에서 나옵니다. 주의 얼굴이 가리어진 괴로운 날.(2) 원수들이 종일 미치듯이 날뛰는 때(8), 주의 분노로 들었다가 내동댕이침을 당한(10) 징계의 순간이 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둘째, 내용: 그것은 속히 응답해 달라는

갈구였으며 연기처럼, 냉과리가 타는 것처럼, 쇠잔하는 풀처럼, 피골이 상접하여 재가 음식이 될 정도로 비참한 자리에서 부르짖는 처지였고, 광야의 당사나 황폐한 곳의 부엉이나 지붕 위의 참새처럼 처량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탄식으로 은밀한 중에 드린 한나와 같은 기도입니다. 마음을 토하는 성도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목 은혜를 기억하라 (시106:1-12) 찬 570장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기억함은 은혜 생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찬양해야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홍해에서 베푸신 구원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감사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구원(엡 2:2)을 중심하여 그의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

워지도록 그분의 섬세하신 의의 손길을 묵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음을 찬양했습니다. 거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무한한 선과 자비가 넘친 것이 단 한 번만이 아니라 무한하셨습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금 영혼의 갈증 (시107:1-9) 찬 425장

본문은 가난한 영혼으로 사는 사람이 풍성함을 얻는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 영적 부요를 얻기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해야 합니다. 1-8절은 하나님 사랑의 찬양과 감사를 통해 속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구해야 합니다.(8)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성취하신 구속

에 있습니다. 그가 친히 택하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그는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필요로 하십니다.(3-7)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집니다. 영적 긴장과 영적 갈증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토 기도의 사람이 받을 복 (시107:10-32) 찬 363장

우리가 난관에 떨어져 주께 부르짖을 때 그는 우리를 반드시 구해주십니다. 첫째,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범죄하여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을 때(10,11), 육신의 절고를 당할 때(17-18), 예기치 않은 환난의 물결이 엄습할 때(23)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되어있습

니다.(마 7:7-9) 둘째, 어떻게 구하십니까? 구령탕이에서 친히 그 분이 구하시며 인도하여 내십니다. 모든 얽힌 것을 끊으시며 말씀을 보내어 고치십니다. 셋째,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죄 사함, 영적 평안과 그리고 신령한 찬송을 하게 하십니다. 이 복은 고통 중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교회음악 이야기(59)

평안의 찬송

윤임상 목사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지난 주 중 필자는 이스라엘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어느 선교사 가족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래 영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무역계통 회사에 일을 하다 히브리어를 전공한 그의 아내를 만나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 선교를 품은 아내를 따라 함께 이스라엘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동안 두 자녀를 낳아 그들과 함께 10년 가까이 복음을 품고 그곳에서 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 평안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부부가 서로 돌아가며 학생비자를 갱신해서 신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은 현지에서 관광가이드가 생길 때 그것으로 돈을 벌고 또 그들의 가족이 유학 학비를 도와주어 그 도움으로 생활한다고 합니다. 선교사 가족이 살고있는 곳은 한인커녕 아시안 타민족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11살, 10살 두 자녀는 오직 현지인들만 있는 학교를 다니며 그들의 문화와 언어에 동화되어 살아야만 합니다. 선교사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란 말은 더군다나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길거리에서 그들이 즐겨하는 하나님을 주제로 하는 전통 찬양을 가족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표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이 그들 사역의 중심이라고 그 선교사는 힘주어 말합니다. 필자는 이 선교사 가족과 짧은 식사 만남이었지만 그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면이 참 평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평안,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찬송가에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평안을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곡은 "내 영혼 평안해(It is well with my soul)"라는 찬송입니다. 이 곡을 작사한 호라티오 스페포드(Horatio Spafford(1828-1888))는 19세기 중반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 이자 시카고 대학 병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였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예나는 1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낳고 교회에서 자선 활동과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성홍열로 네 살 된 아들을 잃으면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 소유 재산의 대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들은 1873년 다시 비극이 닥칠 때까지 2년을 버텼습니다. 처한 고통을 만회하려 온가족이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스페포드는 가족과 함께 갈 계획이었지만 예기치 않은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카고에 머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어 가족들을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1873년 11월 21일, 프랑스 원양 정기선인 빌 뒤 아브르(Ville du Harve)가 스페포드 부인과 네 딸을 포함, 313명의 승객을 태우고 미국에서 유럽으로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른 배와 충돌하여 빠르게 침몰하며 226명의 승객이 침몰되어 익사하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에 스페포드의 네 딸은 모두 익사하고 그의 아내 안나(Anna)만 살

아남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구원받았습니다(Saved alone, what shall I do?"라는 문구가 적힌 잊히지 않을 정도로 짧은 전보를 남편 호라티오에게 보냈습니다. 소식을 접한 후 사고 선박 회사가 제공한 배를 타고 호라티오는 사고가 난 사흘 후 사고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딸들을 잃은 깊은 슬픔이 그의 정신을 마비 상태로 놓이게 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 상심 가운데서도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의 평강에 영감을 받아 찬송가 "내 영혼 평안해"의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비통한 노래와 달리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복음으로 인한 소망, 그리고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를 되뇌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고통을 저항하며 평화를 만들려는 모습이 그의 글에서 역력히 보입니다. 이 찬송시를 쓴 스페포드는 무디 선생님께서 보셨고 그것이 결국 당시에 유명한 찬송 작곡가 필립 폴 블리스(Philip P. Bliss, 1838-1876)에게 전달되어 이 유명한 찬송이 만들어져 대중에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필자는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이다"를 통해 찬양시의 저자 스페포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시편 29편의 결론으로 자연의 모든 현상을 여호와와 소리로 이해하는 시편저자의 고백을 호라티오 자신도 분명히 믿고 신뢰하였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선교사 가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전해야 하는 평안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외침이 비록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시간낭비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 그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은 그렇게 선을 베푸는데 세상은 왜 그토록 더 악해져만 가지요?" 그러자 수녀님은 그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갠지스강에 한 컵의 물을 떠내면 그만갠지스강의 물은 줄어든 겁니다" 이스라엘 그 선교사 가정의 현신하고 있는 그 수고가 모든 환경이 복음을 전하기에 사방이 막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외쳐도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 허공을 치는 듯한 외침일지라도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 한 가족이 살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 지역에 기독교 인구가 더해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고 사역하는 모습 또한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게 되는 자연의 모든 현상, 주위 환경과 사건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속에 담긴 오묘한 뜻을 바르게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에서 참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리지우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이곳 마나도는 우기가 끝나고...
이곳 마나도는 우기가 끝나고 어느 때보다 무더운 건기를 맞이해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더위가 좀처럼 식지 않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나도 신학교 사역

신학교 교수로 섬기고 있는 마나도 침례신학교에 이번 학기에도 많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약을 파노라마 사진처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중에는 신대웅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올림픽 축구팀의 4강전 출전으로 이곳 마나도에도 축구의 열기가 달아올라서 우리 신학교에도 학생들과 교수들 팀을 나누어 축구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한국축구의 위상을 보여주겠다고 20년 만에 축구를 하게 되었는데 현장에서 급하게 구입 한 고무 축구화를 신고 마나도 더위와 싸우다가 결국에는 영광의 부상과 양쪽 발톱에 시퍼런 멍 자국만 남게 되었습니다.



80~90명의 학생들과 교수가정들이 신학교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에 거주하는데 물을 끌어 올리는 water 펌프가 고장이 나서 1년 넘도록 충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님께서 마나도의 저희 가정을 방문해 주셔서 장로님 부부를 모시고 제가 섬기는 신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Acts 29 사역: 어린이 사역과 교회사역

매월 정기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카우디탄 무슬림 어린이 사역은 감사하게도 라마단 금식 기간에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그치지 않아 그쪽 책임자가 캔슬을 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제목

- 1. 교수로 섬기고 있는 마나도 침례신학교/신학원과 호산나 선교사 훈련학교를 통해 많은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2. 마나도 장학재단을 통해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 23 명의 신학생들이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지도록

3. Acts 29 사역을 통해 카우디탄 무슬림 어린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사역이 되도록

4. 이혜정 선교사의 건강(혈소관 수치)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도록

이성철 이혜정 선교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미낭카바우 종족

▲ 인구 약 4,240,000명

▲ 종교 이슬람교 98%, 복음화율 2%

▲ 복음매체 신약 완역, 구약 번역 필요, 복음매체 있음

▲ 종족 프로파일 수마트라 열대 산악지대에 거주하며 네 번째로 큰 종족이다. 옷과 악세사리 무역상이고,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전통으로 유명하다.

- ▲ 기도제목
1. 미낭카바우족이 신약 성경과 복음 매체를 통해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2. 주님이 회심자들을 보호해 주셔서 강한 이슬람 문화와 전 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3.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구약 성경 번역도 시작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베드로 진서 21

무엇을 보는가?

모든 병이 다 그렇겠지만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떤 식으로 각자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이른다고 한다. 은퇴 후에도 새벽기도회를 가시는 한 목사님은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새벽에 꼭 한 두 번씩 화장실을 가시게 되어 잠이 깨니 불편하시게 그지없다.

가실 수도 없고, 새벽마다 힘든 시간을 지나신다.

그때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감사하시라. 새벽에 소변을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 행복임을 아시라고.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못 된 경우를 생각하면 지금의 상태도 감사하라는 말이다.

revpeterk@hotmail.com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university campus,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2024년 가을학기 신, 편입생 모집', and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신앙 에세이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교교회)



즉각적인 순종

생명보다 더욱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태어났고 사명을 완성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경험합니다. 사명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순종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위한 사명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이런 사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순간,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사명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구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주님. 어디에서 나귀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의아해하는 제자들의 얼굴 표정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묻거

든 누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주인은 즉시 나귀를 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제자들도 아직 주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던 순간, 주인이 쓰시겠다는 한마디에 자신의 것을 두 말없이 내어 주는 사람. 언젠가 천국에 가면 이 나귀 주인이 어떤 분이시지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모습으로 주님 곁에 서 있을 이 나귀 주인, 우리는 그를 보는 순간 너무나 평범한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이름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라면 바로 순종할 것이라고, 내가 한 말이라면 즉시 자신의 전부라도 내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식을 바치라는 말씀에 한마디 질문도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에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묵묵하게 순종하는 마리아.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역사이지만 이 구원 역사를 위해 삶을 드리는 사람들의 순종이 하나님 역사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순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조종을 당하면서 십자가까지 오르신 예수님, 심장을 드리는 그 순종으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순종할 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립니다.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짓고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preachchrist@kcpc.org

기/도/칼/럼

짧은 생각 깊은 생각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교교회)

세상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하고 속히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심사숙고하는 것을 답답해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뒤쳐지지 않으려면, 말도 행동도 생각도 빨라야 합니다. 신중하면 결정력이 부족하고 느린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단편적이고 즉흥적이 됩니다. '마타이스 닐케'가 지은 책,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주목하는 시간이 지난 10년 사이에 12초에서 8초로 줄었다. 8초 후에도 시선을 계속 붙잡지 못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다른 곳으로 떠나간다. 연구에 따르면 금붕어가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이 9초라고 한다. 인간의 집중력은 금붕어보다 짧다." 어쩌면 지금은 더 줄어 5초인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점점 생각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고 이면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말하기 전에 먼저 듣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라."라고 했습니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어리석음은 짧은 생각에서 나오지만, 참 지혜는 깊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퍼했습니다

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 3:6) 생각 없이 보는 순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담도 아내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생각 없이 쉽게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짧은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깊게 사고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배워야 성도들처럼 이것이 그러하냐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짧은 생각이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14) bible66@gmail.com

말씀으로 당신의 우울증을 이해하라

(1면에서 계속)

그는 아버지와 완전한 교통을 나누셨지만 동시에 슬픔을 아셨다(사 53:3). 그는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모든 탄식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훼손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 복음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훨씬 더 귀중한 선물을 약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서진 세상에 넘치는 비뚤어진 방종을 초월하는 소망을 제시하신다. 고난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다. 우울증은 신실한 신자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2. 고통은 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울증을 불신앙이 초래한 고통으로 일축할 때 우리는 도움을 바라는 형제자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단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한다. 우리가 섬기는 하늘 아버지는 사랑이 크시고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렇기에 우리의 유익과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최악의 고통까지도 헤쳐나갈 힘을 주신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은 바울의 고통을 덜어 주기는커녕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후 12: 7-9) 하셨다.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우리 눈에는 이상적이지만 그계 항상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건 아니다. 나의 첫 번째이자 최악의 우울증 에피소드는 내 믿음을 혼란에 빠뜨린 충격적인 사건의 꼬리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명확한 유발 요인이거나 선동적 사건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울증의 늪에 빠질 수 있다. 내 경우에 어느 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햇살 가득한 아침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건이 발생했다. 갑자기 내 마음의 스위치 전원이 바뀌는 느낌을 받았고 순식간에 색깔과 평소의 느낌까지 온통 사라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오 주님, 제발, 안 돼요. 이걸 아십시오. 또 그럴 수는 없어요."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우울증이 닥치기 전까지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완고하고 성찰하지 않는 마음으로 유쾌하게 인생을 살아왔다. 나는 그리스

도가 아니라 성취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러나 가장 암울한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빛을 간절히 원할 때만 그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고난을 겪는 사람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 이야기할 때, 고난이 약한 믿음에 내리는 형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회개하지 않은 죄를 지었다고 부당하게 비난했던, 그의 "비참한 위로자들"(욘 16:2)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려고 또는 생명과 호흡,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를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용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죄에 대한 형벌로 우울증에 빠지도록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 그의 피는 눈보다 희게 우리를 씻어 주신다. 우리에게 여전히 심

자가 있다. 우리는 그 심자가 만 바라보면 된다. 3.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우울증을 앓는다는 사실에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혼자만 아니라 사실에서 위안을 얻어야 한다. 역사와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한 충실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조차도 떨쳐낼 수 없는 슬픔과 씨름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대의 예로는 기독교 작곡가 마이클 카드와 앤드류 피터슨을 들 수 있다. 두 사람 다 우울증과의 씨름을 노래로 만들었다. 이들은 수천 년에 걸쳐 성인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평생 우울증과 싸웠던 찰스 스펀전의 회상이다. "나도 얼마든지 읊처럼 '내 영혼이 생명보다 목을 매 죽는 것을 택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 영혼의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나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다윗도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는 이렇게 탄원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 지리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시 38:6-8) 시편에는 고난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생생한 모델이 많이 등장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어둠 속을 헤매 때, 시편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시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괴로움에 빠져 그를 사모하며 부르짖었다. by Kathryn Butler, TGC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